

각 지부 동문 참여율 감소로 고심, 대책 마련해야

[설문조사 결과] 이민 1세 거동 불편, 이민정책 · 유학감소로 젊은 동문 유입 줄고 있는 추세



워싱턴 DC 동창회 사로수 모임



미네소타 동창회 학생/VM동문 모임

【기사: 김원영 편집인, 뉴욕】

미주동창회(회장 윤상래)는 미국내 25 지역 동창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동창회 운영 관련 약식 설문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첫째, 각 지부가 실행하고 있는 활동사례와 추진하는 일 등을 소개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둘째, 각 지부의 어려움을 파악해 향후, 미주동창회가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셋째, 미주동창회와 각지부의 미래를 위한 자료 수집이다. 미주 25 지역에 소재한 서울대 동창회는 미국 사회의 다양함 만큼이나 각기 독특한 환경과 지리적 여건에 맞게 모임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다양함은 미주 동창회 만이 가진 값진 자산이다.

본 설문조사는 각 지부의 구성원, 운영, 미주 동창회와 회보 관련 질문 10개를 만들어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다. 전체 25지부 회장단 중 16 지부로부터 연락이 왔다. 회장단이 부재 중이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참여 못한 곳과 구성원이 매우 적은 지부는 이번 질문의 답변을 사양했음을 밝힌다. (전체 설문조사 결과 P16~17)

이번 설문 조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동문의 행사 참여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민 1세 동문의 고령화, 미국 이민정책의 변화, 모교 유학생 감소 추세로 동문의 동창회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세련된 동창회 운영이나 젊은이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의 미비도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다. 참여율의 감소는 회비, 후원금 감소로 이어져 동창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다. 북텍사스 동창회(회장 이석호, 농대 78)는 정기 행사를 앞두고 지역 한인 신문에 행사 안내광고를 게재한다. 새로 이사오거나 동창회의 존재를 모르고 있던 동문이 간혹 이 광고를 보고 연락을 많이 해온다는 것이다. 한인 유입이 많은 대도시 동창회는 지역 한인 신문에 행사 광고를 할 때, 한편에 동문 발굴 광고를 넣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듯 하다.

2. 대부분의 지부에서 참여 동문의 평균 연령은 70세 전후이고, 젊은 (50세 미만) 동문의 비율은 10~20%였다.

예외적인 곳이 세 곳있다. 미네소타 동창회(회장 황효숙, 사대 65)의 젊은 동문 비율은 30%정도인데, 80-90년대 학번 동문이 동창회의 중심축이라고 한다. 미네소타 동창회는 타 동창회에 비해 선후배 간 교류 시간이 많고 각종 세미나 형식의 모임이 많다. (참조: P2, 미네소타 동창회 설문조사) 샌디에고 동창회(회장 이재봉, 인문 88)는 젊은 동문 비율이 50% 이상이다. 지부가운데 가장 높다. 학생이나 포닥 등의 동문 모임에 직장인

동문이 참여해 얼굴을 익히고, 이후에 별도의 소모임(예: 술자리, 운동)에 초청해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은 결과, 젊은 동문의 동창회 참석률이 높아졌다고 한다. 동창회 임원진에 신세대 동문을 포함시킨 것도 젊어진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다. 워싱턴 DC 동창회(회장 정평희, 공대 71)는 안선미 전 회장 당시 임원진 대부분을 80년대 학번으로 구성하여 동창회의 평균 연령을 낮추는 노력을 하였다. 이어서 정평희 회장도 이 지역 2000년대 학번 모임인 '사로수'의 대표 동문을 임원진에 포함시키고, 세 지역을 두 달에 한번씩 돌며 선후배 간 네트워크를 쌓아가고 있다.

3. 많은 지부는 젊은 동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모임을 만들어 시행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지 못했다.

신세대 동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호회, 지역 학술단체에서 만난 동문 참여 유도, 학술 세미나 개최, 선배와의 대화, 멘토/멘티 제도, 동문 모임 지원과 동문 행사 참가비 면제, 선물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주며 참여를 유도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 주 동창회 류성렬 (공대 72) 회장은 "많은 노력을 했는데, 효과는 작았다. 신세대 동문은 동창회 참여에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며, 동창회와의 연결 없이도 미국 현지 생활에 지장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젊은 부부의 경우, 자녀와 가정 중심으로 바

쁘며, 외로운 이민 사회 생활은 교회 등 종교 활동으로 대체하므로 동창회에 참여할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뉴욕지역 동창회(회장 손대홍, 미대 79)는 유학생, 30대 동문을 중심으로 '관악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행사를 독립적으로 한다. 시카고 지역 동창회(회장 홍혜례, 사대 72)는 두 달에 한번 모임을 갖는 '관악 클럽'을 만들어 지원하며 젊은 동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4. 대부분의 지부가 동문 주소록을 보유하고 있다. 각자 실정에 맞게 관리한다.

휴스턴 동창회 구자동 (상대 70) 회장은 "미주동창회가 각 지부의 동문이 스스로 본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개인 정보 보호와 매세징 기능이 있는 동문 회원록 앱(APP)을 만들어 모든 동문에게 보급하면 지역마다 회원 주소록 관리하는 형식과 방법이 다르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의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냈다.

이밖에도, 이번 설문조사에는 각지부의 '연중 동창회 정기, 비정기 행사 소개', '소망하는 동창회 사업', '운영 중 보람을 느낄 때', '운영상 어려운 부분', '미주동창회에 건의 함', '회보에 다루면 좋을 테마', '자랑스러운 동문 추천' 등의 조사 항목에 다양한 의견들 (전체 설문조사 결과 P16~17) 을 보내왔다.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미네소타 동창회 (회장, 황효숙) 설문조사 결과

"젊은 세대가 가장 필요로 하고, 관심있는 부분을 동창회가 적극 나서서 도움"



황효숙 (사대 65)

[편집자 주] 이번 설문조사에서 미네소타 동창회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상세하게 각 질문에 답변을 보내왔다. 본 동창회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타지역도 참고가 될 것으로 여겨져 전체 내용을 게재한다.

1. 전체 동문 수, 동창회 참여 동문 수

현재 약 120여 명이여 연령분포는 20대에서 80대까지로 넓은 폭을 보이고 있다. 봄철야유회와 연말총회 같은 대규모 행사의 경우 50~70명 정도가 모이고 있다.

2. 참여 동문의 평균 연령(학번)과 젊은 동문(50세이하)의 참석율. 해당 지부에서 젊은 동문을 참여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만약 시도를 해 봤다면,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효과가 없었는지?

연령분포는 20대에서 80대까지로 넓은 폭을 보이고 있으며 1950년대 학번 8명, 60년대 학번 12명, 70년대 학번 8명, 80년대 학번 21명, 90년대 학번 27명, 2000년대 학번 52명 등이다. 5-6년전까지만 해도 대체로 50-60년대 학번 동문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80-90년대 학번 동문이 그 중심축을 이여하면서 3-40대 젊은 동문과 20대 유학생 동문의 참여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50세이하 젊은 동문의 참석율은 대략 30%정도이다.

젊은 동문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아래와 같다. 대부분 효과가 있었으나 멘토/멘티 제도의 경우 호응이 많지는 않았다. 서울대 학교 졸업생들이 대체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멘토를 만나러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야하는 등 몇가지 제약이 있다고 추측한다.

◆ 학술 세미나 개최
매년 가을학기 개강을 맞아 학생 동문 및 지역 한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계, 기업 및 국제기구 등에 취업을 위한 이력서와 인터뷰 준비 등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강연과 관련자료는 교수 및 기업에 취업한 동문이 후배들을 위해 자원해서 준비하고 있다. 진로탐색과 취업 준비 요령 등 젊은 세대에게 가장 필요하고 관심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 YM 동문과 선배와의 대화
젊은 동문을 위해 원로선배님들이 자원하여

식사를 대접하며 학교선배로서, 또한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가지 유익한 말씀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선후배의 교류를 촉진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 멘토/멘티 제도
학생동문/YM 멤버 등 젊은 세대 중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전공분야나 관심분야를 감안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를 동창회에서 선정하고 연결하여 지속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진로탐색, 삶의 방향 등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조언을 해주는 유익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학생/YM동문 모임 지원
동창회비에서 학생 동문과 YM 멤버 및 가족들이 따로 모여 친목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연간 4회 총액 \$1,000을 지원하여 젊은 세대들만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다. 위에 열거한 활동들에 힘입어 미네소타 동창회는 타지부들 보다도 훨씬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동창회에서 YM 모임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는 것에 대해 젊은 세대들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타 다른 동창회 행사에 젊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1차 여성동문 모임 (4월)
여성 동문들의 친목도모와 적극적인 동창회 참여, 그리고 여성간사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학술세미나 준비를 위해 여성동문 모임을 가진다.

◆ YM 동문과 선배와의 대화 (4월)
원로 선배님들이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연간 1-2회 정도 만나면서, 학교선배로서, 또한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가지 유익한 말씀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 봄철 야유회 (5월)
춘계 야유회를 매년 5월 동문과 가족이 참가



여성동문 모임

많은 젊은 동창회가 되고 있다.

3. 동문 주소록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지?

동문 주소록을 회장단이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항상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 되어 있다.

4. 1년 중 정기, 비정기 행사 소개

◆ 1차 임원모임 (2월)
회장, 총무 및 간사들이 모여 차기 임원진 후보, 1차 이사회 안건, 학생대상 강연회 등에 관해 논의하고 전반적인 연간 동창회 행사 계획에 대하여 토의한다.

◆ 1차 이사회 (3월)
회장단 및 이사들이 참석하여 연간 행사 계획 및 예산안 승인, 차차기 회장 후보자 논의 및 추천, 장학금 인상안, 기타 안건에 대해 토의와 의결을 한다.

◆ 학생 / YM 동문 봄학기 개강회 (3월)
대학원 재학중인 동문과 YM 멤버 및 가족들이 모여 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친목을 도모

한 가운데 진행한다. 정성들여 준비한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바베큐 고기를 먹으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동문의 정과 웃음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3개교 (서울-연세-고려) 골프대회 (5월)
매년 5월경 3개교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서울대 동문 20명 내외, 연세대 4-5명, 고려대 4-5명, 그밖에 가족, 친지 등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인원이 참가하여 매년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다.

◆ 여름 골프대회 (7월)
매년 여름 서울대 동문, 가족, 친지가 참가하여 화창한 날씨속에 친목을 도모하며 즐거운 라운드를 하고 저녁식사 및 시상식에서 각부문 시상을 진행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2차 여성동문 모임 (7월)
여성 동문들의 친목도모와 적극적인 동창회 참여, 그리고 여성간사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학술세미나 준비를 위한 두번째 여성동문 모임을 가진다. 이 모임에서 다가오는 9월 학술세미나 연사 선정 및 날짜/장소/음식준비 등을 토의하고, 차기 여성간사 후보를 선정한다.

◆ 가을 골프대회 (9월)
가을 골프대회는 서울대 동문, 가족, 친지 등을 포함하여 매년 평균 30명내외의 인원이 참가하여 동문간 친목을 도모하며 즐거운 라운드를 하고 저녁식사 및 시상식을 통해 각부문 시상을 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신입생 환영 및 가을학기 개강회 (9월)
매년 가을학기 개강을 맞아 학생간사와 YM 간사 주관으로 유학생 등 신입학원 환영 모임 및 점심식사를 제공하며 유학생들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낯선 곳에서의 적응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 학술 세미나 (9월)
매년 가을학기 개강회와 동시에 학생, YM, 여성, 학술간사 주관으로 학생, YM 동문 및 더 나아가 미네소타 한인학생회/재미 한인 과학자 협회 미네소타 지부와 연계하여 학생, YM 동문 등 젊은 세대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학술세미나 행사를 열고 있다. 1) Career development in academia: Getting doctoral degree and the beyond, 2) 국제기구 취업을 위한 장/단기 전략, 3) 미국 취업을 위한 이력서와 인터뷰 준비 등을 주제로 서울대 동문 선배들이 나서서 유익한 강연을 해주고 있다. 최근 몇 년동안 미네소타 동창회의 이 행사는 서울대 동문을 비롯한 한인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많은 관심과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 학생 / YM 동문 가을학기 종강회 (11월)
학생 동문과 YM 멤버 및 가족들이 모여 가을학기 종강을 맞아 그동안 학업과 업무 등에 매진했던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 모임 또한 동창회에서 지원하는 젊은 세대들의 모임 중 하나이다.

◆ 연말총회 및 송년파티 (12월)
미네소타 동창회의 가장 중요하고 큰 행사인 연말총회 및 송년파티가 매년 12월초에 동문들과 동문가족들의 정성이 깃든 고급스러운 음식을 곁들여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다. 식사 후, 동창회 총회를 통해 당해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와 승인이 이루어지고 차기임원 선출, 장학금 수여식, 동문 초청강연, 그리고 게임 및 경품추첨을 끝으로 한해의 마지막을 동문 간의 우애를 다지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

동창회 운영

5. 어려운 부분

기존 이민 1세대의 고령화와 미국 유학/이민의 감소추세에 따라 젊은 세대 회원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다. 그에 따라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받는 일이 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미네소타 지부의 경우 타 지부에 비해 젊은 세대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기는 하나 학업 및 포스트닥 연수를 마치고 미국내 타주 혹은 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감안하고라



장석정 (법대 68)

허튼 말처럼 들리지만 세상이 많이 그리고 빨리 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 바야흐로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變曲點, inflection point)을 지나고 있다는 말도 한다. 누군가 말했듯이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본다면, 역사가 어느 한 시점에서 갑자기 과거와 전혀 다른 모양으로 크게 바뀌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성 싶다. 그래도 우리로서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큰 변화의 시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마도 역사를 보는 우리의 눈이 결코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이겠다.

인류사를 돌이켜 보면 역사사회에서 지금의 첨단사회에 이르는 동안 엄청난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얘기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동안의 변화가 주로 산업이나 경제발전과 관련된 변화였다고 한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경제 분야 뿐아니라 정치, 교육, 사법, 언론, 군사, 교통, 의료, 에너지, 테러, 일상생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혁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이 광범위한 변혁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모양인데, 이미 사람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로봇공학, 드론기술, 그래픽처리기술(GPU), 블록체인, 합성생물학, 집합지능(CI), 크라우드소싱 등,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휘들을 열거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얘기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고, 정보와 지식의 재생산으로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 또 시간-공간의 제약이 허물어지면서 무비용 고효율의 초유동성 사회가 열리고 있다는 등,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도 여전히 그 비율은 높지 않다. 당연히 이사(OM 멤버) 약 60여명 중 30여명 정도가 활발히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만 젊은 세대(학생동문 및 YM 멤버)는 명부에 있는 70여명 중 20여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6. 보람있었던 일

서울대 동문 및 지역 한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술세미나를 통해 진로탐색과 취업준비요령 등 젊은 세대에게 가장 필요하고 관심 있는 사안을 도와주고,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소통과 학교 선배로서, 또한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가지 유익한 말씀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는 등 젊은 세대를 위해 애쓰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동창회에서 YM 모임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는 것에 대해 젊은 세대들은 매우 고맙

역사의 변곡점

말들을 들먹이며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변혁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 동정하게 된다. 하기는 이 모든 분야를 다 꿰뚫어 알기는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권리, 복리가 모든 가치

위에 있어야 한다는 인격지상주의 또는 인간성

최우선주의가 크게 도전받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AI,

IoT, AR, GPU, CI 등등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인간소외(human alienation),

비인격화(impersonalization), 비인간화, 탈인간화,

무인간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어쨌든 이제 “알렉사, xx를 해 줘요”라고 말하기만 하면 일이 다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안다. 로봇이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요리도 하고 아이들을 돌봐 주고, 컴퓨터가 가르치고, 질병을 치료하고, 차가 스스로 운전하고... 이렇게 신기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주변의 많은 일들이 쉽고 편하고 빠르게 처리되고 있어 과연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고 사회가 더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한 쪽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축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재앙이 될 것인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작금의 광범위하고 전폭적인 혁신이 반드시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때문이다.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생활의 한 필

수요소가 되어버린 이른바 소셜미디어라는 것이 늘 편리하고 재미있고 좋지만 한게 아니라 여러 부문에서 많은 부작용과 역기능을 빚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급변(急變)하고 속변(續變)하는 환경에서는 우리가 배워 알고 있는 지식의 ‘유효기간’이 점점 짧아지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이 사회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세계 대학의 절반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인공지능의 첨단 기술은 이미 인간의 지능을 초과하는 이른바 특이점(Singularity)을 넘어서고 있어 앞으로 노동이 불필요한 시대가 되면서 결국 현재 직업의 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기의식은 아주 심각하다고 하겠다.

인간의 인간됨이야말로 그 어떤 사물이나 가치, 개념보다도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는 인본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다.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권리, 복리가 모든 가치 위에 있어야 한다는 인격지상주의 또는 인간성 최우선주의가 크게 도전받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AI, IoT, AR, GPU, CI 등등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인간소외(human alienation), 비인격화(impersonalization), 비인간화, 탈인간화, 무인간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주인이여야 할 인간이 그 자리를 기계와 장치와 기술과 정보에게 빼앗기고 그 “것”들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게 된다는 말이다. 지금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바로 그 “것”들의 독단과 전횡,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인간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인류는 인류의 몫을 지켜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기계보다 우수한 부분, 감성을 다루는 일, 공감능력이 필요한 일 등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몫이어야 한다. 모든 일을 늘 냉철하게 기계적,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으로만 처리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심리적, 감성적, “인간적”인 따스함으로 처리해야 한다. 울고 웃는 것, 사랑과 동정, 인내와 희생, 양심과 신앙, 그리고 “인간”관계 등은 사람만이 갖는 특성이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호기심과 창의력, 설득과 협상, 협력과 팀웍 등은 사람이 기계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리고 농담과 실수, 착오와 왜곡, 갈등과 모순 등도 사람만이 빚어내는 일들이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성이 상처받고 병들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이를 빨리 회복하고 치유해야 한다. 이미 인간성을 잃었다면 이를 다시 되찾아야 하고 이를 도모하고 계발하고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성이 심히 표류하고 있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지식인, 지성인, 지도자들이 해야 할 책무가 아닐까. 무엇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만일 컴퓨터와 로봇과 드론과 데이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면 이는 인류사의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일리노이주립대 명예교수

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타 다른 동창회 행사에 젊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에 힘입어 미네소타 동창회는 타 지부들 보다도 훨씬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많은 젊은 동창회가 되고 있다.

7. 동창회가 하면 좋을 사업

장학사업의 경우, 지금은 기금의 규모상 장학금 지급이 서울대 동문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나 만일 추후 기금이 늘어난다면 동문자녀 혹은 지역의 한인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미주동창회와 회보

8. 미주동창회에 건의 함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미주 총동창회가 각 지부의 좋은 활동사례 등을 모아서 타 지부에 전파하는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례 등).

동창회 주소록 및 정보관리에 있어서 미주 총동창회와 각 지부 간에 긴밀한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회원에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구글드라이브 등을 통해 각 지부와 총동창회의 회장단 만이라도 동창명부와 주소 정보를 공유하고 타지역 동문과의 원활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9. 동창회보에 다루면 좋을 테마

동창회의 그동안의 활동 (동문이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 중 타 지부에게도 권하고 싶은

자랑스러운 일을 각 지부별로 소개하는 기사

10.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동문 (원로, 젊은 동문 불문)을 추천해 주세요. (추천하신 동문은 회보에 인터뷰 혹은 '미국에서의 나의 발자취' 특집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김권식 (Kwonshik Kim) 동문 (공대 61) President, EVS Inc.

미네소타 지역에 오래 거주하면서 미네소타 한인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물심 양면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서울대 동문의 위상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동문이다. dskim@evs-eng.com 612-961-6878

연방하원의원 후보 펠김, 김국간 (치대 64) 동문 장녀



선거운동 참모들과 함께

【기사: 김정현 (공대 68), 필라델피아】

금년 11월 6일, 화요일에 치러지는 미국 총선, 펜실베이니아주 제 5선거구에 연방하원의원후보로 뛰고있는 펠김(Pearl Kim, 39세) 후보는 김국간(치대64) 동문과 소아과 의사 김희숙씨의 장녀이다.

펜주 델라웨어 카운티에서 Assistant District Attorney 와 펜주 Senior District Attorney General 직을 거친 펠김 후보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성범죄 피해 여성들을 위해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검사로서 불합리한 성범죄관련 형사제도 개선을 위해, 특히 펜실베이니아주 최초의 인신매매 방지법안의 입법화에 노력해 왔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강간 등 특수범죄피해자 책임검사로 일해 왔다.

2015년에는 성폭력 등 특수범죄 담당검사로서 이룩한 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로부터 이 분야에서 그해 최고의 검사에게 수여하는 노움 말레ng 법무장관상(Norm Maleng Minister of Justice Award)을 받기도 했다.

펠김후보가 펜실베이니아주 검찰청 Senior District Attorney General직을 그만두고 정계에 입문하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그는 안타깝게도 대학시절 학내에서 벌어진 성적피해(sexual assault)를 당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도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태도에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경험해야 했다.

김 후보는 “제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경험이었다”고 당시의 당혹스런 심경을 밝힌다. 피해자로서 몸소 미국의 잘못된 형사사법제도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다. 브린모어 대학(Bryn Mawr College)에서 Fine Art를 전공하며 목판화와 디지털 아트에 심취해 있던 펠김은 불합리한 형사제도를 바꾸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하고 빌라노바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후 검사로 봉사해 왔다.

6명의 Primary 후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낸 김 후보는 현재 쉽지 않은 상대와 본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그의 경쟁상대는 대형 로펌의 공익 활동(pro bono) 변호사와 교육위원으로 일해온 메리 게이



부모님과 함께

스캔런(Marry Gay Scanlon, 59세 여성) 민주당 후보다. 세계 최대의 방송회사인 컴캐스트의 수석부사장 데이비드 코헨(David L. Cohen)이 선거자금 모금을 돕고 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에드 렌델(Ed Rendell)이 메리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메리 후보는 이같은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교육개혁과 이민법개정 등 유권자의 피부에 와닿는 선거공약들을 통해 지지기반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모두 연방하원의원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30대 후반의 젊은 전직 검사와 50대 후반의 노련한 전직 변호사의 한치 양보도 없는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와 스캔런 후보는 현재 공석인 7선거구 보궐선거에서도 맞붙게 된다. 두 후보 모두 본선거와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고 연방하원이 될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잡은 역사적 운 좋은 행운의 후보들이 셈이다. 미투운동이 낳은 결과다.

제 7선거구 팻 미한(Pat Meehan, 공화, 62세)의원이 전직 여성직원으로부터 받은 성희롱(sexual harassment) 클레임 해결에 국민세금을 사용한 정황이 뉴욕타임즈에 폭로되면서 지난 4월 27일 의원직을 사임함으로써 발생한 보궐선거에도 동시에 출마하게 되었다. 김 후보측은 “몽고메리 카운티와 델라웨어 카운티의 유권자들 중 저를 지지하시는 유권자들은 투표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고 저를 두번 찍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고 설명한다. 7선거구에서 서만 당선되면 2개월 동안의 잔여임기 동안 연 연방하원으로 일하게 되며 5선거구에서 당선되면 향 후 2년 임기동안 연방하원의원으로 일하게 된다. “아빠의 모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가을 아우회 개최



【기사: 김유경 (72), 뉴잉글랜드】

뉴잉글랜드지역 동창회는 지난 9월 8일 (토) 뉴튼에 소재한 어번데일 (Aubumdale) 공원에서 가을 아우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하여 주최측에서 준비한 바베큐 음식과 후식 등을 나누며 화기애매한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윤상상 회장 주재로 이사회를 진행한 후 즐거운 식사와 담소의 시간을 가졌으며, 식사 후에는 함께하는 동문회,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동문회에 대한 신임 문화장의 인사말과 새 임원진 소개가 있었고 특히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윤상래 회장이 미주동창회의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 및 뉴잉글랜드 지부의 중요성 및 참여의식을 치하하였다. 또한 동문으로 참여한 김용현 총영사는 총영사 활동 및 9월 말에 계획된 Korea week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참석

자들을 대상으로 영상 안내 시간도 가졌다.

뉴잉글랜드지역 동창회의 주요 산하 모임인 산우회의 김정선 회장은 산행에 관한 에피소드 및 산행의 즐거움을 설파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시간을 갖고 동문의 흥미를 끌기도 하였다. 이어 52 학번 김대식 선배부터 94 학번 김소연 후배까지의 소개와 그시대 회상을 가지며 서로 알아가는 자리를 가져 학창 시절로 돌아간 동문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문회에서는 다음 행사로 12월 8일 (토) 연말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일정과 그 밖의 전반적인 행사 계획, 지난 행사 사진들은 <http://sites.google.com/site/snuane>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하며,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소록 업데이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재훈 (공대 72) 동문,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기사출처: 시애틀N (편집)】시애틀에 거주하며 워싱턴주 동창회장을 역임한 김재훈 (공대 72) 동문과 부인인 김명호 님은 10월 5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2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8 세계한인회장 대회'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재외동포사회 권익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김 동문은 보잉사에 근무하는 한인 가운데 최고위직인 기술연구소

인 서울대학교가 세계적으로 훌륭한 대학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며 늘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이 자랑스럽다"는 펠김 후보는 미주동창회에서 당선되면 향 후 2년 임기동안 연방하원의원으로 일하게 된다. “아빠의 모교

펠김 (Pearl Kim) 후보 후원

www.pearlkim4congress.com

서세옥(미대 46) 동문

뉴욕 리만머핀 갤러리에서 개인전 개최



서세옥 (미대 46)

【기사: 리만머핀 보도자료, 김원영 편집인】한국화단의 원로인 서세옥 (미대 46) 동문의 뉴욕 개인전이 9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첼시의 리만머핀(Lehmann Maupin) 갤러리에서 열린다. 리만머핀은 산정 서세옥 (b.1929) 동문이 갤러리의 소속 작가가 되었음을 알리며, 그의 첫번째 뉴욕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올해 90세를 맞이한 작가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제작한 수묵연작 <사람들>시리즈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대형 한지에 커다란 붓으로 완성한 이 작품들은 다양한 비움, 두께, 농담(濃淡)을 가진 일획과 선을 이용하여 고도로 양식화된 인간을 표현한다. 그의 작품은 거침없이 그려진 듯 보이지만 이는 길고 긴 명상 후에 나온 결과물이며, 그렇게 완성된 작품은 조용하면서도 시각화된 한 편의 시(詩)처럼 자꾸만 그것을 들여다보게 하는 힘이 있다. 오프닝 리셉션은 9월 8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맨해튼 웨스트 22번가 갤러리에서 열렸다.

작가는 고령인 탓에 오프닝 리셉션에 직접

People, 1995, ink on mulberry paper
16.54 x 12.6 inches, 42 x 32 cm

참석을 못하였다. 장남이자 화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서도호 (미대 81) 작가가 리셉션에 참석하여 호스트 역할을 했다. 서세옥 동문은 은관문화훈장(2012), 제52회 대한민국 예술원상(2007) 등 많은 수상과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대학교 명예 미술학 박사(1988) 학위를 받은 바 있다.



서도호, 손대홍, 권문용 동문 (사진제공: 손대홍)

엄종열(미대 61) 동문

"그림으로 배우는 한국문화유산" 출판 기념회 개최



【기사: 엄종열 동문, 필라델피아】

엄종열 (미대 61) 동문이 발간한 '그림으로 배우는 한국문화유산' 출판기념회가 지난 8월 19일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필라한인연합교회 본당에서 약 200여 명의 하객들의 축하 속에 진행되었다.

740만 재외동포 자녀들의 정체성 뿌리 교육용 시청각 교재인 '그림으로 배우는 한국문화유산'이라는 제목의 책자는 5년 전 우리 거

레가 남긴 문화유산과 나라를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44인을 중심으로 약 100여 개 종류의 대표적인 한국문화유산과 인물을 주제로 Color와 흑백 그림을 직접 그려 구성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쉽게 우리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 된 Coloring Book이다.

세계 수천 개 한국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는 유치원이나 Senior Daycare Center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우리 문화 교육용 교재

김종률(사대 51)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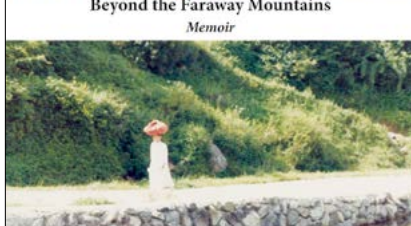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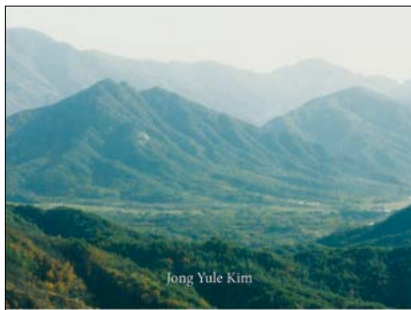
"Beyond the Faraway Mountain" 회고록 발간 기념회 및 결혼 50주년 축하 모임



김종률 (사대 51)

【기사: 허유선 편집위원, 뉴욕】

김종률 (사대 51)동문의 "Beyond the Faraway Mountain" 회고록 발간 기념과 결혼 50주년 축하연이 9월 15일 뉴욕 근교 허드슨강변에 위치한 X20 Xaviars on the Hudson in Yonkers에서 가족, 친지와 뉴욕지역 골든클럽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신들의 꽃 증정, 케익 커팅 순서와 이준행 (공대 48) 골든 클럽 명예회장의 축사, 신영남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아름다운 소프라노와 테너의 솔로 및 듀엣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앵콜곡 등으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특별 참석한 뉴욕의 김정기 시인은 회고록 출간에 붙여 "민음의 산맥"이라는 제목의 축시를 낭송하였다.



The book Cover

김종률 동문은 인사를 통하여 많은 분들과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한국 전통 잔치처럼 그냥 오가는 많은 지인들을 다 불러 흥겹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잔치를 치루지 못하고, 아쉽게 적은 인원으로 소소히 치루는 잔치의 아쉬움을 표하면서 참석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동문을 찾습니다

다음 동문의 연락처를 아시는 분은 미주동창회 (978-835-0100)로 연락 바랍니다.

김영철 (상대 44), 복가주 박경룡 (약대 63), 남가주 김원호 (약대 63) 동문

삼가 명복을 빕니다.

- 김영일 (상대 61) 동문 별세, 장례식 8월 18일
- 송영두 (인대 56) 동문, 8월 17일 별세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다음의 QR code를 이용하여 편리합니다.



이다. <연락처> Tel: 856-236-6916 / 856-359-6114 / Email: johnum1940@gmail.com



송윤정 (인문 89)

게으름의 미덕

잡초가 제 맘껏 자라있다.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때가 되면 여름이 힘을 다하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다. 여름 끝자락에 오면 나는 성난 듯한 열기에 백기를 들고 정원 가꾸는 일에 시들해지고 잡초는 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갑자기 선선해진 아침 공기를 맞으며 나는 정원에 나갔다. 키가 자랄 대로 자란 잡초를 뽑아내니 보라색 셀비어 꽃이 드러난다. 키 큰 잡초에 눌려있던 노란 데이릴리로 활짝 웃는다. 더러워진 아이의 얼굴을 닦아낸 듯 정원이 밝아지는 중에 한쪽 구석에 파묻혀 있던 국화 화분이 눈에 들어왔다. 작년 가을에 샀던 노란 국화가 다시 피었다. 매해 가을 일년초라고 파는 국화를 사 정원 곳곳에 놓았다가 겨울에 접어들

의 길"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고의 전환을 하지 못한 인간은 노동의 가치를 외치며 높아진 생산성으로 같은 시간을 일해 필요 이상으로 생산해내고 그런 잉여생산은 누군가의 몰락과 실업을 불러오니 그는 "일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신념은 지대한 피해를 불러온다"고 했다. 일부 선진국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정신을 실현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급격히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엔 과잉 생산을 피하기 위한 자원의 분배와 이러한 생산성의 혜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며 양상하게 마른 가지만 남아있는 화초를 정리하곤 했다. 작년 늦가을엔 게으름을 피우느라 정원에 놓인 양상한 화분들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었는데 겨우내 눈에 쌓여있다가 봄이 된 후 초록 잎이 났다. 새잎이 날 때만 해도 죽은 국화에서 나는 게 아니라 잡초 일 거려나 했다. 점점 잎이 커지며 국화 잎 모양과 향을 드러내어도 정말 꽃을 다시 피울까 의아해 했다. 이렇게 노란 국화꽃 몽우리들이 몽실몽실 열린 것을 보니 그동안 일년초라는 마케팅에 속아 버려온 많은 화초가 안타깝게 떠오른다.

한편으론 이렇게 한화분에서 새로운 꽃을 보는 것이 게으름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자, 오래전에 읽은 버트란트 러셀의 글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 불꽃 기억난다. 돌이켜보니, 1932년에 그는 어떻게 그렇게 시대에 앞선 생각을 했을까 감탄스럽다. 그는 그 글에서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산업혁명 전 지주들이 노예의 노동으로 삶의 여가를 누리던 시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산업혁신과 기계 자동화 이후 같은 양의 재화를 훨씬 적은 시간에 생산할 수 있으므로 인류 모두가 더 적게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이 행복과 번영

인간의 역사는 왕과 지주체제 이후엔 새로이 지배계층이 된 자본가들에 의해 같은 경제모델을 유지해왔다. 노동의 가치를 외치며 자본을 갖지 못한 이들의 노동을 극대화해 그 혜택은 자본을 쥔 자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이다.

올해 미국에선 최저생계수단으로 지급되던 혜택마저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급 중단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다. 최상위 부자에게 돌아가는 감세 조치까지 더해져, 그렇지않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빈부차가 심한 이 나라는 약화일로에 있다. 기술혁신에 따른 자동화가 가장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곳인 이 나라는 혁신이 가져오는 혜택을 자본가가 고스란히 거두어가는 노예 시대 모델의 폐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러셀이 말한 대로 하루에 네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엔 사색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삶을 꿈꾸어 본다. 그런 세상에선 갖가지 꽃을 심고 가꾸며 대낮에 날아다니는 나비도 바라보고 서늘한 그늘에 앉아 좋은 글을 음미하는 호화를 누릴 수 있으리라.



최진영 (문리 55)

은행일이 가져온

긴 인연

뉴욕 맨해튼의 한 곳에서 사는 나는 집에서 한 블록쯤 떨어진 곳에 몇 그루의 은행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한 후부터 은행일을 접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은행일들이 유난히 노랗게 떨어져 있어 앞드려 줌고 있었더니 어린 백인 아이들이 이 머리 하얀 동양 할머니가 왜 땅에 떨어진 잎들을 줌고 있는가 하고 호기심에 차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행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곳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만, 은행나무를 보면 나의 추억은 순간 60여 년 전의 동송동으로 달려갑니다. 서울대 문리대 앞길에 늘어서 있던 은행나무들은 나의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는 이미지이며 언제나 나의 꿈의 보금자리입니다. 나의 추억은 문리대 영문과 3학년으로 줄곧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961년 폴브라이트 장학생 1호로 미국으로 떠나기까지의 3년간의 경험은 나에게 영어영문학의 공부와 삶의 지표를 맞게 하는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입학하면서부터 권중희, 이양하 교수님들로부터 어려운 고전이나 주로 영국작품들을 강의시간에 배웠지만, 그 당시 교환교수로 내한한 미국인 교수들은 미국 작품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영문과 3학년이 되던 해에 일어난 잊지 못할 경험부터 시작하여 그때 맺은 인연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50년대부터 외국에서 온 교환교수들이 거쳐하던 곳이 문리대 건너편 의과대학 캠퍼스 서쪽 코너에 있는 외국인 교수회관이었습니다. 2층으로 된 건물인데, 2층에는 침실이 네개 있고, 아래층에는 넓은 거실과 사무실, 주방, 식당 등이 있었습니다.

영문과 3학년 때 권중희 교수님이 부르시더니 미국에서 온 교수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 많이 불편해하신다고 저에게 통역 겸 일을 도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요즈음 말로 제가 "알바" 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뻐했습니다. 첫째 영어를 매일 몇 시간씩 말할 수 있고, 교수회관이 바로 문리대 정문에서 걸만 건너면 되었고, 강의가 없는 날은 그곳에서 두 서너 분의 미국 교수들의 일을 도왔습니다. 자연히 그곳에서 식사도 했기 때문에 미국 음식에 익숙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일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이름이 Lee, Yi, Rhee가 다 같은 '이' 씨 성이냐고 묻기도 하고, 특히 점수를 낼 때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

였습니다. (저는 점수 배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음을 밝혀둡니다.)

1950년대 후반에 문리대 영문과에 오셨던 세분의 미국교수들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신 A. C. Howell 교수 부부와 교수, 인디애나에서 오신 Virginia Harlow 교수로 주로 미국 문학 강의를 하셨고 Mrs. Howell은 영어 회화를 맡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세분을 다 다시 만났습니다.

외국인 교수회관은 항상 방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교수들과의 면담자 오는 영문과 학생들 뿐만아니라 영어 회화를 연습하려는 고등학생들, 그리고 당시 교수회관에 임시로 체류 중이던 Gregory Henderson 미 대사관 문정관을 만나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객들의 안내뿐만 아니라 언어소통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통역을 맡아 하였습니다. 방문객이 많지 않은 날은 사무실에서 공부하면서 그 당시 시내에서 구하기 어려웠던 잡지나 신문들을 읽을 수 있어서 또한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중에 저의 생애에 큰 변화를 가져온 분이 이 교수회관에 체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31운동 34인으로 추앙받던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Frank William Schofield, 1889년 3월 15일~1970년 4월 12일) 박사였습니다.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이 국빈으로 초대한 분입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1916년 캐나다에서 한국에 선교사 겸 연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내한한 후, 1919년 3.1운동을 이끌던 학생들을 돕고 체포되어 구금된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구명운동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리에서 주민들을 교회로 몰아넣고 불을 질러 학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그곳까지 자전거로 달려가서 사건을 찍고 기록하여 해외에 알렸습니다. 그 외에도 3.1운동의 여러 상황을 기록해 놓은 기록물을 연희대 창고에 묻어 두었습니다만 끝내 분실되고 말았습니다.

1919년 스코필드 박사는 일본 경찰에 의해 추방되었고 38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초대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부정, 부패를 신문 칼럼(The Korea Times)을 통해 신랄하게 비판하시다 국빈 숙소에서 떠나 서울대 수의과 대학교수로 외국인 교수 회관으로 옮기셨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를 처음 만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한 백발, 한쪽 다리를 못 쓰셔서 지팡이를 짚으시고, 나중에 알



뉴욕지역 동창회 2018 추계 골프대회

【기사: 손대홍 회장, 뉴욕】
10월 3일 수요일 뉴욕지역 동창회(회장 손대홍)는 Wayne, New Jersey 소재의 Preakness Valley Golf Course에서 참가자 43명이 참가한 추계 골프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폭우가 내려 대회 진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당일 아침 언제 비가 내렸는지 모를 만큼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서 동문과 가족들이 11개 조로 나누어 즐거운 라운딩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동문들이 경기 시작보다 훨씬 이

른 시간에 도착하여 기념품과 경비용 볼을 지급받고 클럽하우스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에 이어 12시에 샷건 방식으로 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곳의 Nearest Hole과 한 곳의 Longest Hole을 선정하였으며, 플레이어들 모르게 선정한 12개 홀의 점수를 참가자의 핸디로 하는 신펠리오 방식으로 채점하여 우승자 및 기타 수상자, 그리고 최고의 스코어를 기록한 메달리스트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4시 30분이 조금 경과하여 경기를 마쳤으

게 되었지만 한쪽 눈도 보지 못하시는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권 교수님의 말씀대로 스코필드 박사의 통역 겸 비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1919년 캐나다로 돌아가 거의 40여년을 모교의 교수로 봉직하고 은퇴하셨기 때문에 옛날 한국에서 배웠던 한국어를 완전히 잊으셔서 저의 통역이 필요하였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지만 조금도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셨고, 철저한 기독교 신앙과 정신으로 가난한 학생들과 고아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각지의 사람들과 교류하여 많은 편지와 서신들이 답지했습니다. 이러한 서류 정리도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저를 딸이라고 부르시며 가족 얘기도 하시고, 특히 유머를 좋아하시어 사람들 흥내도 내셔서 많이 웃기도 하였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의 외로운 고학, 소아마비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과 용기와 의지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한국의 부패상을 통렬히 비판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헌신한 그분의 생애는 많은 논문과 저서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1958년 처음 만나 저를 딸이라고 총애하시던 박사님과 길고 긴 인연은 2016년 그 분의 전기를 영어로 번역 출판하고 금년 2018년을 서서히 보내면서 60여 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곧 은행일이 떨어지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 본 스코필드 박사의 일상 생활과 인품과 활동, 유문 등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2015년 서울대에서 행한 저의 강연 기록과 2015년 '월간조선' 5월호에 많은 사진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우승: 천병수 (맨오른쪽)

며 곧이어 클럽 하우스의 테라스에 마련된 장소에서 뷔페식으로 저녁 식사와 함께 시상식을 가졌는데 우승, 준우승, 3등에 이어 메달리스트를 시상하였고 두 홀에서의 Nearest와 White, Senior, Lady Tee 별로 Longest에게 상품이 수여되었다. 아울러 총 13명을 추첨으로 뽑아 행운상을 시상했

뉴욕지역 동창회 한태진 이사장 초청 임원회의 개최



【기사 제공: 뉴욕지역 동창회】
9월 11일 화요일 뉴욕지역 동창회의 임원진 모임이 있었다. 40대 동창회가 출범한지도 2개월이 넘었는데, 정기총회와 이사회 이후 임원진들의 해외출장 및 업무, 여행 등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한태진(의 58) 이사장의 초청으로 뉴저지 알파인(Alpine)의 기쿠(KIKU) 레스토랑에서 임원진이 부부동반으로 모여 뉴욕지역 동창회의 현안들과 향후 행사 등에 대하여 푸짐한 저녁식사를 곁들여 3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태진 이사장은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비롯해서 현재까지 수고하고 있는 임원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당부하였다. 손대홍(미 79) 40대 동창회장은 자리를 만들어준 한태진 이사장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2018 추계 골프대회를 비롯해서 송년회까지 임원들의



임도혁, 민준기, 정도현, 오인석 동문

으며 행운상 1등을 별도로 시상하였습니다.

손대홍 회장(미 79)이 진행한 시상식은 시간 내내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그치지 않는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한태진(의 58)의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 중 최고령자인 진봉일(공 50) 동문의 12월 1일 송년회 성공을 기대하는 당부를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다음 행사인 송년회에서의 재회를 기약하며 2018년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추계 골프대회는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상자
▲ 우승: 천병수 (공 70), ▲ 준우승: 유무영 (공 73), ▲ 3등: 김태일 (공 68), ▲ 메달리스트: 손경택 (송 57), ▲ Nearest 6th Hole: 박승용 (의 65), ▲ Nearest 13th Hole: 권정덕 (의 58), ▲ Longest (White Tee): 김광수 (공 72), ▲ Longest (Senior Tee): 김인형 (미 59), ▲ Longest (Lady Tee): 조승자

뉴욕지역 동창회
회장, 손대홍 (미대 79), T 201-388-4700
이사장, 한태진 (의대 58), T 201-562-8501

협조를 부탁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동창회 현안은 3주 앞으로 다가온 2018년도 추계 골프대회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고,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송년회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가 나누었다. 아울러 얼마 전 출범한 동문합창단에 대한 동창회 차원의 지원 결정을 하였으며, 이 외에 몇 가지 동창회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토론회로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에피타이저로 시작하여 푸짐한 생선회를 비롯한 요리들과 식사에, 모두가 운전 때문에 간단하게 곁들인 주류까지 즐기며 3시간여에 걸쳐 웃음이 그치지 않는 화기애애한 대회의 시간이었다.

참석자 : 한태진(의 58) 이사장 부부, 손대홍(미 79) 회장 부부, 이주연(을 86) 사무총장 부부, 조달훈(사 66) 감사 부부, 김창수(약 64) 장학위원장, 홍종만(공 64) 고문 부부

김수영 (사대 57) 동문

팔순 기념 시집 '그리운 손편지' 출판기념회



【기사: 김수영】

김수영 (사대 57) 동문의 팔순기념 시집 '그리운 손편지' 출판기념회가 9월 29일 LA 만리장성 식당에서 미주한국문인협회 주최, 남가주동창회 후원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70세에 문단에 등단한 늦깎이 작가이지만 첫 수필집 '늘 추억의 저편'을 펴 내었고 첫번째 시집 '바람아 구름아 달아를 떠낸 바 있다. 수록된 시들은 모두 86편이며 여섯 묶음으로 분류해 이해를 돕고 있다.

하트랜드 동창회 제21차 정기 모임



【기사: 오명순 회장, 캔사스】

제21차 정기 동창회 모임이 지난 9월 15일 캔사스 주 오버랜드 파크에 위치한 웨라톤 호텔에서 30여 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오명순 (가 69) 회장의 개회 인사와 오태요 (의 56) 이사장의 환영사, 그리고 이날 특별히 참석하신 윤상래 미주 동창회장의 격려사로 축하가 시작되었다.



이날은 장학생 선발 보고 및 장학금 수여식이 장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참석하에 있었다. 김재권 (사 68) 직전 회장에 대한 감사패가 수여된 뒤 진행된 이날 안건 토의 및 의결에는 차기회장에 대한 선출이 있었다. 김명자 (문 62) 이사의 추천으로 이치현 (약 77) 동문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골프 대회 시상 및 디너, 그리고 기념 촬영 후, 동문의 밤 행사에는 재무로 수고하고 있



는 임소연 (음 91) 동문과 임소연 동문의 부군 이신 전정호 교수 (비올라 연주)의 특별 연주가 있었다. 이날의 연주 곡목은 다음과 같다.
- Réverie (Dream) by René de Boisdeffre
- "Auch mit gedämpften, schwachen Stimmen" from Cantata No. 36 by J.S. Bach
- 님이 오시는지 by 이규환

특별 연주에 이어서 "나의 삶과 미주 동창회"라는 주제로 윤상래 미주 동창회장의 주제 강연이 있었다.

이날의 마지막 순서로는 이주현 (미 92) 사무총장 부부의 사화로 오락 순서가 있었다. 여러 가지의 코믹하고 재미있는 게임 진행으로 동문 선후배 모두 한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조지아 지부 동창회

2018 가을 야유회, 장학기금 모금 골프 대회 개최



【기사: 주 (하)지영 조지아 지부 회장】

지난 10월 7일에 가을 야유회와 10월 14일에 장학기금 모금 골프 대회의 두행사가 일주일 간격으로 열려서 우리 동창회가 매우 바빠던 2주였습니다.

10월 7일 야유회는 조지아의 아름다운 Fort Yargo State Park에서 50여 명의 동문과 가족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화기애애한 모임이였습니다. 화창한 초가를 날씨에 동문과 바베큐, 각종 음식, 스포츠에 구운 고구마를 시식하며 친구들과 어린 시절로 잠시 돌아가서 향수도 느끼고... 식사 후, 이영진 (공대 76) 동문이 우리 동문의 건강을 위해서 2마일 정도의 산책 코스로 목저지에 도착하신 분들께 스티커를 부쳐 드리고 완주하신 분들께 선물 드리는 게임이였습니다. 목적을 달성하신 동문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작은 문으로 행복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했습니다. 산책 후, 더위를 식하는 최고인 명약인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여유있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며 가을 야유회를 마쳤습니다.

야유회 일주일 후인 10월 14일에 열린 제2회 장학기금 골프대회가 아틀란타의 명소인 Bear's Best 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Florida의 Pan Handle를 강타한 Hurricane으로 날씨를

걱정했는데 다행히 청명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이영진 동문의 참석자 등록으로 시작해서, 골프대회는 샷건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Platinum, Gold, Silver 포함 18홀 스폰서와 함께 봉사자와 함께 3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점심으로 이주경 동문과 아내 이경림 씨가 김밥, 과일, 스낵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참석인이 예상보다 저조하였으나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아름다운 골프장에 각 홀마다 Hole Post로 장식되었고, 골프가 끝난 후, Golf Club Restaurant에서 한식 부패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주지영(문리대 65) 회장이 홀 스폰서를 하신 분들께 감사패를 증정하였습니다. 이후 이주경 골프위원장의 인사와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대회 결과 ▲ 남자부분 우승: 정양수 (의대 60) ▲ 2등: 주종광 (약대 60) ▲ 여자부분 우승: 김연하 (간호대 65) ▲ 2등: 임명섭 (임한응(공대 60) 동문의 아내) ▲ 근접상: 이종석 (의대 54) 동문, 유종숙 (유상봉(사대 65))

마지막으로 부회장과 장학위원장을 겸임한 공영식(사대 79) 동문이 2019년에 총회에서 있을 장학금 수여식에 대한 계획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제2회 SNUAGA 장학기금 모금 골프 대회를 마쳤습니다.

워싱턴 DC 동창회 이사회 겸 정기 총회 개최

【기사: 정평희 (공대 71) 회장, 워싱턴 DC】
지난 6월 30일 (토)에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우래옥에서 워싱턴 DC 지부 이사회 겸 정기 총회가 열렸다. 2018-2020 동안 와싱턴 지부를 이끌어갈 35대 지부장으로 정평희 (공 71) 동문이 만장 일치로 선출되었다. 지난 34대 지부장 안선미 (공 67) 동문의 사회를 진행한 이사회에서 그동안 함께 일해온 임원들과 장학 위원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또한 이사의 임기에 관한 오인한 동문의 발의로 이사는 본인이 사임할 때까지 계속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새로 선출된 정평희 지부장은 아래와 같은 비전을 발표하였다.
1. 동문들 간의 친목 및 긴밀한 결속, 2. 이사회 활성화: 새로운 이사의 영입 및 이사회 조직을 정립, 3. 젊은 동문을 Outreach하여 동창회에 참여토록 함, 4. 지부 동문 명단 update, 5. 임원회의 활성화 그리고 새로 편성된 35대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사기/조직: 최동호 (문 68) ▲ 회계: 강윤선 (전 81) ▲ 총무: 한정민 (공 87) ▲ 문화: 문항식 (공 81) ▲ 체육: 오재환 (사 85) ▲ IT: 김선민 (경 83) ▲ Liaison: 류영준 (공 02)

김청수 (약대 64)
논설 위원

<경제 에세이>

투자의 바른 길

우리의 경제 활동 중에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자택 마련, 자녀의 교육비 장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은퇴자금 축적이라는 커다란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 중에서 은퇴자금으로 1백만 달러를 모으면 노후가 편해지고, 은퇴용 투자액이 50만 달러에 달해도 은퇴자의 상위 10% 이내에 속한다.

저축액과 투자액이 많더라도 이를 은행에만 맡겨 놓으면, 이자소득이 물가 상승을 따라 잡지 못해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투자 활동은 생각보다 수익치가 없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지 않으면 투자 활동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투자대상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두 군데에 집중 투자하면 대단히 위험하다. 투자 상승률이 아주 높게 판단되는 투자대상에 집중 투자했다가 예상이 적중되지 않으면 크게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증권시장 역사에 기록되는 엔론(Enron) 사건의 주체인 엔론사는 1990년대에 「포춘」(Fortune) 매거진에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우량기업으로 6년 간 등재되었었는데, 2001년에 대형 스캔달이 터져서 연 배당 1천억 달러인 엔론사의 주식이 휴지가 되어버렸다.

주식에 겹을 먹고 너무 안전 제일주의로 일관하면, 투자수익이 너무 줄어든다. 은행계좌나 CD(Certificate of Deposit)는 절대 원금이 없어지지 않으니 제일 안전하다. 그러나 그 수익률은 채권보다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식보다 훨씬 못하다. 그리고 고정수입으로 채권이자가 좋으나 이 또한 장기적으로는 주식보다 못하다. 30년 주기로 보았을 때, 역사적으로 주식투자가 제일 좋은 것으로 되어있다.

역사적으로 주식은 채권이나 금(Gold)보다 가치 상승률이 높다. 금이 일반인들의 투자대상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1973년 이래로 연간 평균 가격 상승률이 5.4%로 누적 가치가 82배였는데 비해, 주식은 S & P 500 Index로 보았을 때 연 평균 10.7% 상승해서 누적 가치가 723배가 되었다. 채권은 그 중간으로 연 평균 상승률이 7.8%이고, 누적 가치가 22배가 되었다.

(CPA, 경영대학원 68)

와싱턴 지부 35대 회장단은 앞으로 2년간 지역 동문들이 여러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하며, 이를 위해 동문들의 이메일/전화 등 데이터 베이스와 연락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동호 부장을 중심으로 와싱턴 동문회 회보를 발행하여 동창들의 근황과 소식 뿐 아니라 활성화되는 동창회 모습을 보여 주기로 다짐 하였다. 또한 젊은 동문들의 Outreach을 위해 류영준 (공 02)를 Liaison으로 세워 2000년대 학번 동문 모임인 <샤로수>를 담당하게 하고 또 80-90 학번의 관악세대인 <아크로폴리스> 모임을 적극 후원하여 3세대가 연합하여 같이 활동하며 함께 젊어지는 동창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광수 (사회 80)

무역전쟁에 관한 생각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물건들을 쓰지 않고 살 수 있을까? 2005년 미국의 언론인 Sara Bongioimi 와 그 가족은 글로벌 경제를 실험해보기 위해서 중국산 물품을 일체 보이콧하고 일년을 살아본 후 "A Year Without 'Made in China'"라는 기록을 남겼다. 15bulan이 살 수 있었던 중국산 운동화를 피하러니 70불짜리 운동화를 사야 했고 커피머신이 고장났는데 그 부품이 중국산이라 고치지 못하고 냄비로 물을 끓여 커피를 만들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면서 글로벌 시대의 국제무역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감했고 다시는 이같은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2005년경 미국은 전체 수입 중 약 14퍼센트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고 올해는 지난 7월까지의 수치로 볼 때 중국산 수입은 20퍼센트를 넘었다. 싸거나 같은 값이면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찾는 상식적인 소비생활에서 미국산 물품을 접하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무역전쟁의 여파로 수입 제품들의 가격이 갑자기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흔히 먹는 진통제인 Ibuprofen(애드빌이나 모트란)의 원료나 휴대전화기 배터리에 필요한 희토류(rare earth) 등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서 아직까진 관세폭탄에서 제외된 품목도 있지만, 생활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쓰이는 수많은 제품 또는 부품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던 중에 터져나온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소비자의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의 문제까지 걱정하게 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유무역과 무역전쟁 중 더 자연스러운 현상은 후자라고 볼 수 있다. 두 국가가 각각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것과 관세를 매기는 것 중에서 양자택일하는 상황을 경기이론(game theory)적으로 분석한다면 소위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 같은 결과가 된다. 상대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관세를 매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 자유무역을 피하는 것이 균형(Nash equilibrium)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자유무역은 양국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각자 자국의 이익만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한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 벌어지기 시작한 무역전쟁은 본능적인 행동으로는 이해가 간단하지만 경제학적 교훈을 무시하고 역사적 진행을 거슬러가는 어리석은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듣자니 알리바바(Alibaba)의 창업자이며 경영의 통찰력으로 잘 알려진 Jack Ma Yun은 이미 시작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앞으로 20년이나 지속될지도 모른다고 했었던데 조만간 그 말이 근거없는 우러로 판명되기를, 다시 말해서 무역에 관련한 속히 국가간 협력의 시대로 되돌아가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

는 장면이다. Nash가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금발 미녀에게 다가가면 우리끼리 겹쳐서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거야. 그리고 나서 다른 여자애들에게 간다면 아무도 두번째 선택이 되고 싶지 않을거고. 그러니 우리 누구도 금발에게 가지 말자. 그럼 우리끼리 서로 방해도 안되고 다른 여자애들도 차선이라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거야" (필자 번역).

Nash의 말을 바꿔 말하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각자 원하는 것만 열심히 추구하면 전체적인 결과도 좋게 달성된다는 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작용하지 않으니 그대신 인위적인 협력과 관리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국제무역의 문제로 돌아가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간 통상조약이나 국제기구가 이같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관리자"의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 상호간 노력에 의해 관세장벽이 해소된 무역정책을 달성한 좋은 예를 발견할 수 있다. 당시 높은 서울때문에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목되던 the Smoot-Hawley Act라는 관세법을 무력화시키는데 있어, 미국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내려주면 그에 상응하게 수입관세를 내려주는 식의 양자간 관세협상(bilateral tariff negotiation)이 실행되기 시작했고 그결과 1932년에 거의 60퍼센트에 달했던 평균 관세율이 제2차 세계 대전직후에는 25퍼센트까지 내려간 것이다.

이렇게 국가간 협정을 통해 관세장벽과 무역전쟁을 피하려는 노력은 다자간 협상(multilateral negotiation)의 양상으로 활발해져 1947년에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를 탄생시켰고 그이후 마침내 1995년에는 국가간 협정의 단계를 넘어서는 국제기구로서의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수립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 벌어지기 시작한 무역전쟁은 본능적인 행동으로는 이해가 간단하지만 경제학적 교훈을 무시하고 역사적 진행을 거슬러가는 어리석은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듣자니 알리바바(Alibaba)의 창업자이며 경영의 통찰력으로 잘 알려진 Jack Ma Yun은 이미 시작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앞으로 20년이나 지속될지도 모른다고 했었던데 조만간 그 말이 근거없는 우러로 판명되기를, 다시 말해서 무역에 관련한 속히 국가간 협력의 시대로 되돌아가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

The Johns Hopkins Carey Business School 교수



이정근 (사대 60)

<시론>
미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종교자유

지난 6월 초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9월 중순에 평양과 백두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이 있었다. 세계 온 인류가 주목한 사건이다. 지구 위에 남아 있는 마지막 분단국가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무척 멀기는 하다. 게다가 과거에 남북회담이란 것이 여러 번 있었지만 번번이 '도루묵'이 되어 왔다.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갔다. 아니, 온탕이 있는 뒤에는 더욱 냉혹한 냉탕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이번에는 무언가 남북관계가 달라질 것 같다는 믿음이 조금씩 더해 간다.

필자는 남한출신이다. 625 당시 초등학교 때 잠시 북한식 교육을 받고 40여년이 지난 때 평양을 처음 방문했다. <기독교평양복음화대회> 준비위 총무 자격이었다. 남북한과 해외 한인신자들이 평양에 모여 집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그 실무준비차 위원장 김의환 목사와 함께 갔다. 하지만 그 복음화대회는 안타깝게도

교 선전의 자유'라는 독소조항도 있어 종교 특히 기독교의 씨를 말려왔다. 지금도 북조선에서는 여전히 종교의 자유는 필요하면 쓰고 불필요하면 벗어버리는 모자와 같다.

그런데 평양정부는 비핵화는 '김일성 수령의 뜻'이라는 말을 또 내세운다. 김일성 어록이 북조선 헌법이나 노동당의 결의보다 실제로는 훨씬 우위로 존중된다. 그렇다면 김일성은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하여 무어라 할까. 그것이 앞으로 있을 종교자유 폭의 가능자일 것 같다. 그래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타난 기독교관, 그리고 북조선 방문 때 얻은 정보들을 덧붙여 몇 가지 살펴본다.

김일성의 조부 김응우는 대동강에 정박했던 사면초 배를 공격하는 선봉장이었고 그 손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했다. 아버지 김형직은 미션스쿨인 숭실중학교를 중퇴했고 기독교 학교의 교사로 지냈

"북조선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대사관이 개설되면 북조선에도 모든 자유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 예상된다.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특히 종교의 자유 등 기본자유 보장이 필연적이다."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측과 평양측의 정치적 벽이 너무 높았다. 그 때의 후계 내정자 김정일이 극구 반대했다는 해석도 있었다.

그래도 처음 밝은 북한 땅에서 공산권 선교를 위하여 기도한 것과 김일성대학교 종교학과 단기교수로 필자 등이 초빙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였다. 그러나 미국에 돌아온 뒤, '조국을 배반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온 가족 살해 협박장을 받기도 했다. 북한측 소행이었다. 비판적 시각에서 북한방문기를 한국과 교포 언론에 게재한 것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것이 벌이기 되어 서울신대학교의 교수직 복직도 좌절되었다.

아무튼 비록 천천히 굴러가기는 하지만 북조선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대사관이 개설되면 북조선에도 모든 자유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 예상된다.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특히 종교의 자유 등 기본자유 보장이 필연적이다. 그 가운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이면서도 그 실현이 가장 잘 안 되는 영역이다. 과거 북한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문이 있었지만, '반종

다. 어머니 강반석은 외가가 기독교집안 이었고 예배당에 비교적 열심히 다녔다. 아버지 김형직이 독립운동으로 체포되었을 때, "봉화리의 기독교인들은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 명신학교에 모여 새벽기도를 드렸다" 김일성 자신이 독립운동 때문에 일본경찰에 체포되었을 때에도 순정도 목사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김일성은 회고록 첫 권에서, '31 인민봉기는 천도교, 기독교,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 인사들과 애국적인 교원 학생들의 주도하에' 면밀히 계획 추진되었다고 썼다. 김일성 자신은 '동심에 맞지 않는 엄숙한 종교의식과 단조로운 설교에 싫증을 느껴 교회에 잘 다니지 않았다'. 성장과정에서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지만, '기독교 정신과 인간의 자주적인 삶을 주장하는 나의 사상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머니는 하느님이 정말 있어서 레베당에 다니시나요?" 하고 김일성이 물었다. "아니다. 죽은 후에 천당 가서는 뭘 하겠니. 사실은 너무 피곤해서 좀 쉬자고 간다"고 대답했다. 김일성의 기독교관은 도산 안창호의 여동생 안신호의 사례가 절정을 이룬다. 해방 후 안신호는 조선민주녀성



이홍빈 (의대 57)

"Hello, 'Magpie' / 까치야, 까치야"
- '까치' 본 날 / 'Telluride', Colorado -

(In an Autumn I've visited with 'Telluride' a resort town
In deep deep southwest a corner of Colorado
At southern foothills of the Rockies)

To tell a story or two
Startled oh away perplexed
From the Valley of Avalanche/Telluride

Hello I love you I utterly do
I'd loved you once far far four thousand leagues away
You came back perched hello to me at the Vale

You fly low aloft
You sit perched alongside civic strife
Along the valley of avalanche

Carrying the message the lover's
Coming afar across the ocean through the valley
Away different seasons and reasons not to begrudge the unseen

I saw my emotional pegs
Begrudged so long/so far
Carried beyond sixty years/afar four thousand leagues

Suchness as strolling Telluride's verily a bliss
Verily the most Colorado place on earth
Backdrop of the magic Autumn elevated

Right 'perfecto-profundo' 'bein' admired
Just 'E passato tanto tempo'
So well shaped 'Black beaked Magpie' oh your whole

동맹 부위원장으로 함께 일했다. 처음에는 '밤낮 성경책만 끼고 다니는 독실한 신자'였다. 그러다가, '리념이나 신앙을 초월하여 민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함께 일하자'는 김일성 권고에 순응했다. 공산당에 입당했고 성경책 속에 당원증을 넣어가지고 다니며 새 조선 건설에 분투한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 사실을 기록하며 김일성은 명확하게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양립 조화될 수 있다'고 확실하게 결론을 맺는다.

이런 회고록 서술들이 김일성 종교정책의 전부는 아닐 것 같다. 다만 김일성의 손주 김정은 위원장이 종교개혁의 본산인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고, 북한을 정당한 국가로 통치를 하겠다는 말에 주



Flyin'
Hoppin' for sure
Valley to town civic strife cloisterin'

Hoppin'
Lookin' for sure
But cryin' for lovers awaitin'

Lookin'
Singin' for sure
Only ahead of for a lover

Singin'
Tellin' for sure
Your love's forthcomin' not afar

Seein' and tellin'
Assurin' from afar
And near for the love sure's come

Such black than blue so white than snow
And I see so colorful a memories
Sure well shaped pure black and white foreseen the love after all .

목한다. 김정은 정권은 최소한 베트남 수준만큼이라도 종교자유의 폭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전망하고 기대한다. 그런 근거가 김일성 어록에 충분히 그리고 명확하게 선언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곧 서울을 방문하게 된다. 이번에는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바쁜 일정이지만 고충빌딩에 올라가서 서울의 야경을 둘러보기를 간곡히 권고한다. 십자가로 뒤덮인 서울의 야경 말이다. 남북한 국력의 차이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바로 그 십자가 정신이라고 한다면 목사인 필자만의 편견일까. (미주한국일보에 게재된 것을 상당부분 보완했음). LA 유니온 교회 목사



양수진 (간호 80)

알래스카 다녀오기

July 2018, 잘못도 분명치 않은 채 두 철벽지 용사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악 자전거(MTB)와 하이킹 장비, 그리고 텐트 장비를 싣고, 새로 구입한 Subaru Outback 자동차로 Los Angeles를 출발해서 Alaska, 7월 한달동안 무려 9,500 마일을 달리는 대장정입니다.

109도의 뜨거운 바람을 뚫고

여인의 큰젓가슴 봉우리라는 Grand Teton에 도착하니 갖가지 이름모를 들꽃과 자작나무원이 살랑대며 결코 쉽지않은 트레일이 우릴 기다리고 있어 down hill MTB의 갖가지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Yellowstone의 Grand Prismatic basin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트레일을 국립공원에서 MTB로 즐긴 후, 백해옥 선배님(간호 69)과 백정현 선배님(음대 69)이 잠깐 머물고 계신 Montana로 향했습니다. 후한 대접을 받은 후 Glacier National Park의 빙설 Logan Path를 백정현 선배님(음대 69)과 하이킹한 뒤, 우린 Canada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Grand Teton National Park

Calgary의 친절한 여행 방문객 안내센터의 도움으로 Banff에서 소나무 숲에 캠프장을 가까스로 찾았는데, 소낙비가 내려 빗속의 정찬을 즐기며 모기에게 무지막지하게 뜯기고 난후, 아침일찍 빙하 Lake Louise에 도착. 호수의 우유빛 푸른색에 입을 다물지 못한채, 그윽 lake Agnes에 자리한 Tea House에서 달콤한 Bluberry 차를 특별한 tea set에 마시고, Jasper의 멋진 호스텔로 향했습니다. 아~~~!! Jasper에서 귀엽게 Berry를 따먹고 있던 Grizzly Bear를 만난 건 공포의 트라우마! 재빨리 MTB를 돌려 하얗게 질린 얼굴로 36계 줄행랑치던 두 기인은 또 MTB를 즐기려고 바들바들 떨며 숲속에 들어가버렸다는 뒷얘기가... Jasper에서의 나무와 꽃과 온갖 동물들과 한바탕 재밌는 놀이가 끝난 후, 자연연천 Liard Hot Springs의 여유는 모든 여독을 풀기에 넘치는 축복이었습니다. ㅋ~~

이튿날 Exit Glacier를 하이킹한 뒤, Seward에 캠프한 다음날, Ferry로 Glacier tour를 즐겼습니다. Global warming을 피부로 느끼면서도 아무 것도 하지않고 있는 우리는 옳은걸까요?

다시 LA를 향하여~~

캐나다 국경을 넘어 Watson lake 전에 37번 길에서 노숙을 했는데 백야의 나라에서 아침을 맞이해 일어나 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길이다. 갑자기 뛰쳐나와 오줌을 질질싸며 도망간 Moose와 자전거 여행하는 멋진 사람들이 간간히 눈에 띄었던 이 길은 다시 가고싶은 길이 되었습니다. British Columbia의 멋진 풍경을 즐기며 Whistler로 가는 99번 도로는 그경치가 압권, 너무나 기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유일하게 이곳에서 좋은호텔에 머물렀는데, free wine과 ice cream service, 그리고 이런 경치를 가진 곳에 올림픽을 유



서윤석 (의대 62)

우리가 걸어온 길
- 50주년 졸업 행사에서

함춘원 단풍이 일렁인다
시계탑 분수대가 솟구친다
황소들의 발자국 소리에
독수리들의 날갯짓 소리에
높은 구름이 춤을 춘다

담벼락 뒤에서 시신屍身을 내어준
당신들의 영혼에 감사한다
흰 가운을 주신 상야탑에 감사한다
가슴을 흔들어대는
우리의 발자국 소리

한숨과 눈물로 슬퍼한다
떠나간 사람을 슬퍼한다
먼저 가버린 정다운 벗들을 슬퍼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같이 걸어가던 그 옛날 발자국 소리

조국의 산하山河가 흔들린다
풍진 세월 살아 남아
승리의 등불로 돌아온
오디세우스Odysseus 창군 보다 깨끗한
훈장이 가슴에서 빛나는
우리의 발자국 소리

살을 에이는 겨울이 되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외로움이 닥친다 해도
떨리는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영원한 발자국 소리



1968년 2월 졸업하던 때 대학병원 시계탑 앞에서
뒷줄 왼쪽부터 김희주(VA), 신용계(VA), 서윤석(VA),
장진관(Korea), 장한일(Korea)
앞줄 왼쪽부터 안세현(Delaware),신규호(Buffalo, NY),
김영남(Philadelphia, PA), 김주형(VA)

치한 넘 아름답고 친절한 Whistler에 반했지요. 특히 Bike Park에서 새롭게 경험한 great bouncing trail(5-7 m?)은 짜릿했습니다. Vancouver를 가는 길에 Mt. Garibaldi를 하이킹했는데 그 산위에 호수도 푸른 우유빛으로 그 맑음에 놀라, 조선시대 유명한 풍류시인 황진이가 본다면 무어라 시를 지을까 궁금했습니다. ㅋ~~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운영하는 호스텔에서 묵고, Ferry로 Victoria Island에 도착하여 Butchart Garden에 가니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꽃들이 화려한 크기로 상스럽게 피어 그 자태를 뽐내고, 돌아가는 곳마다 꽃의 요정이 sprinkle하고 있었습니다. 그 섬에서 캠프한 뒤, Ferry로 국경을 넘어 시애틀의 명산 Olympic mt.의 온대우림을 조금 맛본 뒤 깨진 앞유리를 고치기 위해 Seattle에 들려 급한 숙제에 열공하였답니다. LA에서 남가주 총동창회장님 강신용 선배님께서 양수진 재무국장과 이상실 후배에게 멋진 식사를 사주시겠다는 약속이 전달되어 덕분에 멋진 Seafood Restaurant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답니다. ㅋ~~ Mt. Rainier를 Hiking하며 멀리 Mt. Hoods, Mt. Adams, 그리고 Mt. Helens를 볼 수 있었고, 빙설 위에서 미끄럼도 타고 천진한 아이처럼 놀다가보니, 그날이 제 생일이었던대요. 갈이간 상실 후배가 끓여준 미역국도 먹고 Seattle 사는 후배가 급조케익도 준비해줘서 멋진 생일이 되었습니다. ㅋ~~

우리가 생각해도 스스로 기인이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여행. 우리 머리속에 적당히 편집되어 아름다운 추억이라 기억되어있을 여행. 오직 먹을 것 만드는 일만 조금 분주했던 여행. 덕지덕지 쌓였던 일상의 때를 어느 정도 씻어버렸을지도 모를 이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으로 복귀가 좀 힘들지도...^^ 누군가 말합니다. "여행은 추억이 아닌 바로 그 순간"이라고요. 그냥 인생이지요...

다시 또 길을 잡아 PCH로 내려오다 볼타기



이태상 (문리 55)

To the Successful by the Virtue of Competence and Endeavor

‘Success and Luck: Good Fortune and The Myth of Meritocracy’ by Robert H. Frank that came out last year was recently translated into Korean and published, entitled (in Korean) ‘To the Successful by the Virtue of Competence and Endeavor.’

In this book, the author, a professor of economics at Cornell University, argues that the successful tend to underestimate the role that chance plays. The issue is whether it’s hard work or luck that decides the outcome. This may sound like there’s no other option, but I’d present the third option one can take. Whatever and how many options there are, what you decide to take is up to your choice. Isn’t it?

All the while living my life for eighty odd years, I’ve never even dreamed that there would be a day like today, one day. Looking back, had I not lost my first love almost sixty years ago, I could not have come to realize that I and all others, all beings are ‘cosmians’ born ‘arainbow’ from the Cosmos. A young boy who happened to fall in love with the microcosmos of a flower ended up embracing the whole macrocosmos.

Although everyone encounters from time to time both blessings and curses in disguise, doesn’t it make all the difference depending, no matter whether it’s a ‘fortune’ or a ‘misfortune’, on what one makes it to be, after all. We see all the time the fall of the most powerful and successful from the pinnacle of power and success, while some ‘hopeless’ and ‘helpless’ losers rise from the ashes of despair and failures, like a phoenix.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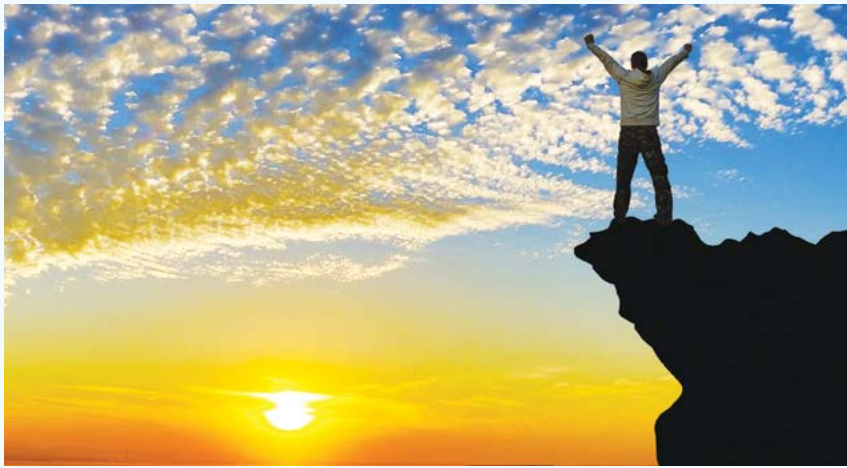
I’d like to share a bit of my most recent experience.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two books in September last year, ‘39 Project’ and ‘Tae-Mi Sa-Byun (Dialectic Dialogue - Thought Romance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Between An 80-Year-Old Man and A 24-Year-Old Girl), I commissioned this very promising young entrepreneur who had pulled off these two great surprise feats of publishing success to launch a new quarterly ‘Cosmian’ in the same spirit and vein of the now defunct very popular intellectual magazine ‘Ssanggye (The World of Thoughts) in March this year.

For totally unaccounted reasons, this new project was aborted. Instead, another much more meaningful and visionary global online newspaper



The Cosmian News <http://www.cosmiannews.com> was launched on July 10, 2018.

Early this year, my Korean publisher, Ms. Jeon Seungseon, Poet, Novelist and Playwright, started writing a nonfiction narrative of my life, ‘Cosmian’, and it was published on June 1, 2018. So I contacted Ms. Deborah Smith, the English translator of Korean novelist Han Kang’s novel ‘The Vegetarian’, which won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in 2015. Since my approach was unsuccessful, I decided to translate it into English myself, revising and rewriting it in my own words. It was partly serialized in The Cosmian News until a global publisher was found for print publication.

Furthermore, a Cosmian Festival in celebration of the inauguration of The Cosmian News is scheduled for October 27th and 28th and all the ‘cosmians’ are cordially invited, in spirit, if not physically.

Therefore, as the saying goes, if not this, someone or something far better will turn up, sooner or later, if one never ceases to look for what one wants. I’m reminded of a comment confided by the late V. S. Naipaul (1932-2018), winner of the 2001 Nobel Prize for Literature, who was born in Trinidad in a family with Indian roots and just passed away.

“I knew the door I wanted, I knocked.”

He must have meant to say that there are so many doors. If one door doesn’t open, I’ll knock another. If another door still doesn’t, I’ll knock yet another until one opens. At the same time, we’d better recall Steve Jobs’ motto: “The journey (itself) is the reward.”

It is tough to accept the hard truths of life but we all have to accept them anyway. One is that for anything to happen anytime anywhere,

the whole Cosmos has to conspire. Won’t it be?!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 Robert H. Frank가 쓴 ‘Success and Luck: Good Fortune and the Myth of Meritocracy’는 지난 해 나온 책이다. 이 책이 지난 달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란 제목으로 번역 출간돼 화제다.

노력했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운이 따라줘야 한다는걸 여러 사례와 경제학적 모델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노력’이나 ‘운발’이냐의 문제인데 나는 제 3의 ‘대응방식’을 내가 적용해온 대로 제시해보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80여 년 동안 오늘 같은 날이 있을 줄은 꿈도 못 꿀 일이다. 돌이켜 보면 60여 년 전 내 첫사랑이 이루어졌더라면 나 자신이,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니 우주 만물이 ‘코스미안’임을 깨닫게 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어린 소년이 한 송이 아주 작은 소우주 코스모스 꽃을 사랑하다가 대우주 코스모스를 품게 되었으니 말이다.

사노라면 우연히 전화위복이나 전복위화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복’이나 ‘화’가 닥쳤을 때 이에 대해 각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지 않던가. 성공의 정상에서 자만하다가 추락하는가 하면 실패와 절망의 잣데미에서 불사조처럼 되살아나 비상할 수 있다. 그 예로 내가 직접 최근 겪은 한두 사례를 들어 보리라.

지난해 9월 자연과 인문 출판사에서 ‘39 프로젝트’와 ‘태미사변’이란 책 두 권이 동시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기획을 총괄한 아주 유능한 서울대 재학 중이던 여학생에게 올해 3월 옛 ‘사상계’ 같은 지성 계간지 ‘코스미안’ 창간 프로젝트를 맡겼었다. 그런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인지 몰라도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허무하게 무산되는 바람에 훨씬 더 의미있는 새로운 글로벌 인터넷 신문 ‘코스미안뉴스’ <http://www.cosmiannews.com>를 지난 달 7월에 창간하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소재로 ‘자연과 인문’ 출판사 대표 전승선 시인이 올해 6월 출간한 소설 ‘코스미안’의 영문번역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영국의 테보라 스미스에게 적극 의뢰해 보았다. 그러나 여의치 않게 되는 바람에, 내가 직접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새로운 영문원과 가 완성되었다. 이를 처음으로 ‘Cosmiannews’에 연재하다가 영문판 ‘Cosmian’ 출판계약을 맺게되어 일단 중단하게 되었고, 10월 27일 서울에서 ‘코스미안뉴스’ 창간 기념 ‘코스미안 축제’를 열기로 했다.

세상사 세용지마다. 영어로 표현해서 ‘If not this, someone or something better’를 찾다 보면 찾아지는 것 같다. 최근 85세로 타계한 인도계 영국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VS 나이폴이 생전에 한 말이 떠오른다.

“난 내가 열고 싶은 문이 어떤 문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문을 두드렸다. (I knew the door I wanted, I knocked.)”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꿔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엔 수많은 문이 있을 테니 이 문이 안 열리면 저 문, 아니면 또 다른 문을 노크해 보리라. 어떤 문이 열릴 때까지. (There must be so many doors. If one door doesn’t open, I will knock another. If another door still doesn’t, I will knock yet another until one opens.)’

스티브 잡스의 좌우명인 ‘여정 자체가 보람이자 보상이다(The journey is the reward)’라는 말처럼 우리도 여정 자체를 보람으로 삼으면 긍정하지 않을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일이다.

“세상에 어떤 일이 언제 어디에서든 일어나려면 온 우주가 공모해야 된다. (For anything to happen anytime anywhere, the whole Cosmos has to conspire.)”



김옥영 (문리 52)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요즈음 나는 웬일인지 나도 모르게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배운 이 청산별곡이 입에서 자주 흥얼거리며 흘러나오는 것을 의식한다. 나이 탓인가 보다.

나는 미국에 하도 오래전에 유학 왔었고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지 않는 동부 커네티컷 주 의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50여년을 살아 왔기 때문에 요즈음의 우리나라 말 쓰기에 자신이 없다. 아는 친구들도 우리처럼 1950년 초기에 유학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한국어말은 그 당시에 쓰던 데로 그 곳에서 멈춰버린 셈이다. 그러다가 2006년 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 Seattle에 이사 왔더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으며 접하는 기회도 자주 있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들이 하는 말들을 때로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1953년에 미국에 유학 왔을 때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고생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말을 감잡을 수가 없다니 이런 모순과 수치가 어데 있나 싶어 귀를 가다듬고 다시 공부하듯 열심히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커네티컷에서 살고 있을 때 한국인 의사가 있었다. 미국에 온지 몇 년도 안 되면서 한국어말 못한다고 영어로만 회화를 하여 모두 그 사람을 좋지 않게 말했다. 그런 말이 남들 입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노인을 위한 수필 강좌에도 등록하고 글도 쓰기 시작해봤다. 나는 60여년을 영어로만 글을 써왔고 한국문학 영문 번역가로 내 구실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 왔던 경험으로 영어로 글을 쓰나 한글로 쓰나 좋은 글쓰기는 그 원칙은 한 가지라는 신념으로 쓴 글이 어느 정도 호평도 받게 됐다. 내 가 쓰면서 자란 우리말을 어찌 완전히 잊을 수가 있겠는가? 영어란 오래 쓸수록 더 힘든 언어라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며 이런 오랜 세월을 쓰고 살았던 영어도 나에게서는 외국어에 해당하다. 그렇다고 우리말이 더 편할 수도 없다. 사실 나의 모국어 는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일제 강점기 만주에서 세 살 때 서부터 국민학교 5학년까지 일본말을 쓰면서 자랐기 때문이다. 세 언어 중 하나로 완결하게 모국어 사용자가 되지 못한 채 한 평생 살았지만 각 언어의 장점을 감상하며 음미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이며 보람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뿐이다.

그런데 내 한글 쓰기 수준은 쓸모도 없어진 구식 글이 되어버리고 요새 쓰는 말들이나 표현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됐다. 철자법이며 띄어쓰기도 문법도 많이 변했다. 더구나 놀랍게도 영어를 우리말로 바꿔 쓰기는 이해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누가 부패 먹으로 가져고 했다. 나는 부패라

삼식 씨

는 말은 썩었다는 의미인줄알고 당황했던니 그 말은 “buffet” 라고 설명 받은 경험도 있다. 귀도 잘 안 들리는 나이가 되고 보니 “coffee”를 코피 라고해서 코에서 흘리는 코피 인줄 잘 못 알아들던 실수도 있었다. 어떤 신혼 여성이 자기 신랑보고 오빠라고 부른다. 나는 의아했으나 지금은 오빠의 뜻이 sweet heart, darling, 따위의 애칭으로도 사용한다는 것도 알아 차렸다. 그래서 나는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실수도 많다.

어떤 아는 부인이 “우리 삼식 씨가” 운운한다. 그 말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그 부인은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

사람들이 지나가다 하는 인사는 “아침 하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그런 말을 주고받고 했다.

지금도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아무리 부리는 하인들이

있어도 주부들이 대식구 밥상 차리기 위해

하루 종일 부엌에서 매여 살았다.

삼식은 커녕 찾아오는 손님마다

일일이 하는 대접에도 허덕여야 했었다.

면서, “아니 그 말도 모르세요?” 하면서 설명해줬다.남자가 은퇴 후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삼시 세끼를 고박고박 쟁겨 줘야하는 딱 하고 귀찮은 남편을 말한다...

우리 부부는 곧 결혼 60년을 맞이하게 됐다. 나는 이 오랜 세월을 남편에게 고박 고박 식사를 챙겨주면서 살아왔다. 요새 사람들은 나나 나의 “삼식 씨”가 살아온 시대를 이해 못할 것이다. 전쟁을 두 번 겪었고 식민지와 피난민의 고역을 이겨낸 세대 사람들이다. 세계 먹을 것이 있다는 것만 해도 고마운 시절이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하는 인사는 “아침 하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그런 말을 주고받고 했다. 지금도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아무리 부리는 하인들이 있어도 주부들이 대식구 밥상 차리기 위해 하루 종일 부엌에서 매여 살았다. 삼식은 커녕 찾아오는 손님마다 일일이 하는 대접에도 허덕여야했었다.

나의 남편의 식성은 지금까지도 별로 변하지 안했을 뿐만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식성은 후퇴하고 어린 시절에 먹던 것들을 더

욱 찾는다. 추억을 더듬어 그리움에 흐릿해진 눈으로 자기가 먹던 음식 이야기를 하면 나는 괴롭기만 하다. 나는 만주에서 자라났고 더구나 우리가 살던 하얼빈이라는 도시는 이차 전쟁 중에서도 구라파적인 분위기에서 음식도 서구적이며, 중국, 일본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났고 더구나 우리 어머니는 마식가면서 음식 솜씨는 비상하였으나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정에서 먹는 음식은 아니었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은 요새 유행하는 소위 “fusion cooking” 같은 것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어린아이답지 않게 미각에 예민했었다. 그 시대는 계집아이가 맛있는 것만 재빨리 골라 먹는 것은 결신쟁이 나쁜 버릇이라고 어른들한테 늘 꾸지람 받았다. 그러기에 자라서는 더욱 요리하기를 즐기게 됐다. 그러나 남편이 먹고 자란 전통 음식은 힘들었다. 그 당시는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요즈음 세상 은 아니었다.

신혼 당시 매일 나는 잡채, 만두, 생선 전 따위 “손님대접” 요리를 온 종일 걸려 채려주면 아무 말 없이 짓가락만 움직이는 모습에 눈물이 나왔다. 그가 갈망하는 것은 맴

가 없단다. 1960년대 미국에는 한국 식품 가게가 하나도 없었을 때였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다니면서 한국음식을 만들 만한 재료를 찾아 밥상을 차렸다. 그런 대로 그의 입맛에 맞는 음식 만들기가 익숙하게 됐다. 반면에 나는 언제나 서양요리를 즐겼다. 해외 여행 다니면 그 고장의 특별 별미 음식을 먹고 싶었다. 그러나 남편이 가자는 곳은 언제나 중국집이었다. 물론 한국 식당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래도 꼭 참고 남편이 가자는 곳으로 내키지 않은 발걸음을 움직이곤 했었다. 가끔 나의 형제와 함께 불란서 레스토랑에 가서 마음껏 내 입에 맞는 요리를 음미할 때는 지상의 극락이었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 동생들은 내 생일이면 New York의 유명 불란서 레스토랑에 초대해줬다.

그러나 아이들 셋이 다 학교를 가게 되자 문제는 달라졌다. 아이들에게는 별도로 다른 음식을 채려줘야 했었다. 미국 아이들이 먹는 음식 데로 파스타, 스테이크 등, 여러 종류의 샌드위치를 내 힘껏 남부끄럽지 않게 먹여줬다. 그들이 다 성인이 되어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식탁 아버지 앞에는 자기 각색의 반찬이 담긴 작은 접시들이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를 이 즐기면서 다니는 한국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반찬을 보면서 그 시절서부터 엄마가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힘에 겨웠을까 감탄도 한다. 그래서 무슨 때만 되면 나를 끔찍스럽게 비싼 고급 서양 레스토랑에 다려다 준다. 그런 호강을 받을 때면 이 나이가 된 나도 가장 멋진 옷을 골라 입고 소녀처럼 행복에 가슴이 설레곤 한다.

나는 외출하면 끼니때를 맞춰 젓먹이 아이를 집에 두고 온 듯이 불이 날게 돌아와야 한다. 어디가도 시계를 드러다 보면서 마음이 조바심에 조린다. 집에 와서 남편 저녁식사 준비를 해야 한다. 점심 식사를 다 준비해 놓고 상까지 차려놓고 외출할 때도 많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정수 한다더니 내 주위에는 과부가 된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들과 만나면 내 그런 꼴이 가관스러우면서도 어쩐지 부러운 눈초리로 나를 놓아 준다. 아직도 밥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영감이 있는 내가 부럽다는 뜻이다.

내가 아직도 한국에서 살고 있었더라면 이쯤 살았으면 며느리나 누가 밥상 차려주는 것을 편안히 얻어먹고 여생을 끼니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해봤다. 내가 있을 때 만해도 우리 주위에서는 사람들은 그런 가족재도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실상 사정은 그렇지도 않는 듯싶다. 10년이면 강산이 다 변한다고 하니 이제 내가 떠난 후 6번이나 변한 우리나라는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 된 것이 아닌가? “삼식 씨”라는 말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인이 다 됐지만 그래도 아득한 기억의 미로에서 나의 감상을 끌어 일으켜주는 청산별곡 후렴의 감흥과 울조는 어떤 언어에서도 맛 볼 수 없는 구수하고도 흥겨운 정이 담겨있다. 번역은 불가능하다. 나는 머리를 숙인다. 나의 삶의 터전이 여기 있다...

머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리성 알리리 알리..

지부 회장단 설문조사 결과 [9월 17일~10월 6일]

		동창회 구성원			동창회 운영				미주동창회와 회보		
지역	회장	① 전체 동문 수 ② 참여 동문 수	① 참여 동문 평균 연령(학번) ② 젊은 동문(50세이하) 참여율 ③ 젊은 동문 동참 유도 노력	동문 주소록 관리	연중 동창회 정기, 비정기 행사	소망하는 동창회 사업	운영 중 보람을 느낄 때	운영상 어려운 부분	미주동창회에 건의 함	회보에 다루면 좋을 테마	자랑스러운 동문 추천
남가주 S.CA/NV	강신용 (사대 73)	① 2,000 ② 400명 내외	① 67학번, 70세 ② 50세 이하 10% out of 250 ③ 동호회 활성화, 동참 유도 매우 어려움	No, mailing address. When mail back, then delete or add if a new	* 정기행사: 정기 이사회 (1월), 신년회 (2월), 골프대회 (4~5월), 헐리웃를 행사 (7~8), 가족 캠프 행사 (9월), 원로의 밤 (10월)		* 강력한 RSVP, * 정해진 시간 (On Time) 시작, * 누구든지 동문 년회비 \$50 징수	* 배려, 자원 봉사, positive reaction, donation			
뉴욕 NY/NJ	손대홍 (미대 79)	① 1,500 ② 100명 내외	① 65-80세 ② 젊은 동문 (40세이하)은 따로 모임 ③ 전화로 모임 참여 권유 (큰 효과 없었음)	주소록 있음 (업데이트 보다는 추가만 하고 있음)	* 정기행사: 춘계골프대회 (5월), 정기이사회 (8월), 추계골프대회 (10월), 송년회 (11~12월) * 골드 클럽: 골프, 여행, 컴퓨터 교실 * 관악 동아리: 송년회	* 한국 투어 (모교 학창시절의 내 흔적을 찾아서...)	* 동문과 만남으로 반가움을 느낄 때	* 자발적 참여 * 연락후, 회신 받는 일	* 회보 광고비 인하	* 동문 사업 소개, * 사회적 성공 동문 외 목록히 살아가는 동문들의 일상 소개 * 모교 학창시절의 추억의 장소 소개 * 학창시절의 동문 친구를 찾아주는 기획	
뉴잉글랜드 MA/RI/NH/ME/VT	윤은상 (상대 66)	① 200+ ② 40-50	① 66-67세, ② 10-15% ③ * 대학원 학생들 초대, *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젊은 동문들에게 참여 권고, * 지역 학술단체 (e.g. 과학기술협회)의 회원 중 동문 초대 등 (소수의 일회성 참여, 지속적인 참여는 어려움)	We update it regularly, i.e. once a couple of years	* 정기행사: 가을 피크닉, 송년파티, 정기총회 * 비정기행사: 초청 동문인사와 함께하는 dinner 모임, 장학금 조성을 위한 골프 모임, 이사회 모임 등.	* 고령 동문을 지속성 있는 network으로 보살핌 * 동문 인사 초청 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함	* 동문의 Voluntary commitment, supporting the community services of our alumni members.	* 모임 장소 선정 * 동문의 지속적 참여 유지 * 고령화 동문 care	* 함께 모이는 행사, e.g. cruise, 계속 추진	* 현재에 만족	김은한 동문, 김병국 동문, 이강원 동문 등
북텍사스 LA/DALLAS	이석호 (농대 78)	① 120 ② 50명 내외	① ② 30% ③ * 전화로 모임 참여 권유가 효과적, * 행사 때 지역신문 안내 광고는 자발적으로 신규 동문 연락 오는 계기라 이를 지속함	주소록 있고 정기적 업데이트	* 정기행사: 춘, 추계 골프 모임, 장학금 수여식, 연말 송년회		*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호응도가 높을 때	* 바쁜 중 일일이 전화연락하는 일 가장 부담 * 간혹 냉담하게 반응하는 동문 대할 때	* 지면 뉴스레터를 없애고, 이메일로 전송하고 쉽게 네트워크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소재가 많은 면 좋겠음. * 때로는 내용이 고루하고 따분함.	김육균 (공대 54), 이병규 (약대 57), 조진규 (문리 57)
미네소타 MINNESOTA	황효숙 (사대 65)	① 120 ② 50~70명 내외	① 20~80세 ② 30% (80-90년대 학번 동문이 동창회 중심) ③ * 학술 세미나 개최, * YM 동문과 선배와의 대화, * 멘토/멘티 제도, * 학생/YM 동문 모임 지원	주소록 관리 중, 신규 동문 즉시 업데이트	* 정기행사: 1차 임원모임 (2월), 1차 이사회 (3월), 학생/YM동문 불학기 개강회 (3월), 1차 여성동문 모임 (4월), YM 동문과 선배와의 대화 (4월), 봄철 야유회 (5월), 3개교 (서울-연세-고려) 골프대회 (5월), 여름 골프대회 (7월), 2차 여성동문 모임 (7월), 가을 골프대회 (9월), 신입생 환영 및 가을학기 개강회 (9월), 학술 세미나 (9월), 학생/YM동문 가을학기 중강회 (11월), 연말총회 및 송년파티 (12월)	* 현재 기금 규모상 장학금 지급이 서울대 동문에게만 한정, 주우 기금이 늘어 난다면 동문자녀 혹은 지역의 한인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	* 선배와의 대화, 소통이 원활 * 동창회가 YM 모임 적극 후원하여 YM 동문 동창회 참여 원동력이 됨	* 이민 1세대 고령화, 미국 유학/이민의 감소로 젊은 회원 유입 감소(회비 후원금 감소) 재정적 어려움	* 각 지부의 좋은 활동사례 등을 타 지부에 전파하는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 * 동창회 주소록 및 정보관리에 있어서 미주 총동창회와 각 지부 간에 긴밀한 정보체계 구축 필요. 모든 회원에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구글드라이브 등을 통해 각 지부와 총동창회의 회장단 만이라도 동창명부와 주소 정보를 공유하기 바람	* 동창회의 그동안의 활동 (동문이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 중 타 지부에게도 권하고 싶은 자랑스러운 일을 각 지부별로 소개하는 기사	김권식 (Kwonshik Kim) 동문 (공대 61) President, EVS Inc.
샌디에고 SAN DIEGO	이제봉 (인문 88)	① 200+ ② 40~80명 내외	① 50~00년대 학번 다양한 분포 ② 50% 이상 ③ * 학생, 포닥 동문 모임에 직장인 동문 포함 소모임 활동으로 친분, * 동창회 임원진에 젊은 동문 포함이 참가를 높인 효과	주소록 있고 정기적 업데이트	* 정기행사: 브루어리 방문, 불등산, 골프대회, 하버크루즈, 예술강좌, 가을야유회, 송년회		* 올해 샌디에고 지역 동포를 위해 서울대 글로벌 특별전형입학 설명회를 서울대 입학사정본부 직원들을 모시고 개최하였음. 이처럼 동문만이 아닌 지역 사회를 위한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함.	* 많은 인원이 동창회 모임에 참석할 때 * 동문들끼리 서로 도움을 줄 때	* 임원진 구성 * 동창회비 징수		
시카고 IL/IN/WI/MI	홍혜례 (사대 72)	① 450명 (720명 등록) ② 180여명 (2017년 회비납부 동문 수)	① ② 20% ③ * 젊은 동문의 참여를 위하여 "관악 클럽"을 따로 만들어 매 2달에 한번 모여 친목 도모, 1975년 관악 캠퍼스가 오픈한 이후 입학한 동문, 매년 \$1000 관악 클럽 지원, 모임 참가율은 저조.	주소록 있고 정기적 업데이트 (2018년 10년 만에 그동안 업데이트한 자료를 통합하여 발간하였음)	* 정기행사: 봄, 가을로 2차례 이사회, 이사회 전 준비, 야유회 준비 등을 위한 임원회 3-4회 개최, 6월 하계 야유회, 춘/추계 골프대회, 12월 연말 총회 및 송년회 * 비정기행사: 소그룹의 동아리 모임 (음악 동아리, 북클럽, 미식가클럽), 장학기금 모금 음악회 * 골드 클럽: 세미나 개최, 여행, 골프 * 관악 클럽: 2달에 한번 (6, 12월 제외) 저녁 모임, 추계골프대회는 관악 클럽이 주관함.		* 노선배들(40년대, 50년대 입학)께서 회비를 보내시면서 격려해 주실 때, 멀리 떠난 타국에서 만난 가족 같은 뭉클함을 느낌.	* 연로하신 동문님들이 별세하기 시작하여 장례 참여하는 것	시카고 일대에서 음악강연을 하는 이영우 (문리대 66)동문,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은 우리 서울대 동문들이 회장직을 계속 맡고 있는데, 장기남(문리대 62), 김사직(상대 59), 이승자(사대 69), 김윤태(의대 63) 동문님들은 모두 은퇴 후 한인교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한국을 알리는데 많은 수고를 하심.		
오레곤 OR/ID	김기린 (사대 75)	① 75명 정도 ② 10-15명	① 90년대 학번 50%, 80년대 30%, 원로 동문 20% (원로 동문 점점 불참) ② 70%+ ③ * 올해 처음으로 참여 인원이 너무 적어 여름 피크닉 취소함 - 동문회 전체에 해결방안 또는 동문회 폐지안까지 냈으나 대부분 무관심	주소록은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아는데로 업데이트함	* 정기행사: 여름 가족 피크닉, 연말 동문회 * 비정기행사: 골프대회			* 회원들의 무참여, 무관심			
오하이오 OHIO	이성우 (상대 72)	① 80명 정도 ② 20명		주소록 있는데 업데이트 못하고 있음	None for 2018		Set up smaller localized meetings.	* 개인적으로 너무나 바쁜 사람이고 본인의 동의도 없이 맞겨진 일이므로 동창회 운영 불가능			
워싱턴 DC DC/MD/VA/WV	정평희 (공대 71)	① 700명 정도 ② 80-100명	① ② 10% ③ * 2달에 한번씩 2000 학번 이후 동문과 임원간 식사자리 마련, 5번 정도 모임을 갖었음. * 덕분에 동창회 정기 피크닉에 젊은 동문이 많이 참석함. 관악 세대와는 따로 일년에 2번 정도 만나는 기회를 마련함	주소록 있고 가끔 업데이트	* 이사회, 정기 총회, 피크닉, 연말 파티, 골프, 설날 파티, 음악회 (격년으로)	* 지역 동문 회보 발행. * 젊은 동문을 격려하여 모임에 많이 참석하도록 하고 싶다. * 모임에 참석하면 유익한 무엇인가를 하 나만이라도 얻고 돌아 가는 시간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려 한다.	* 현재의 위치에 올 수 있도록 하여준 학교를 위하여 봉사 할 수 있는 것 * 여러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동문을 만날 수 있는 기회	* 이사회외의 활발한 운영이 필요. * 동창들의 모임 참석율이 저조함	*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동문끼리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골프 대회를 같이 하든지 학술회를 같이 하든지 등. (예를 들면 워싱턴 디씨와 필라, 필라와 뉴욕 등)	* 동문 탐방을 좀 더 다루면 인간미가 더 있는 신문에 될 것 같다. 본부 근처에 있는 동문도 좋고 또 다른 지부에서도 좋고.	안창호 (약 70): 큰 제약 회사를 운영하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BAM (Business As mission) 에 all in 하고 계심. 청년들을 훈련하여 Business 를 저 개발국가에서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줌. 동창회에도 재정적 도움.
워싱턴 주 WASHINGTON	류성필 (공대 72)	① 전체 300명 추산 (등록은 200명 정도) ② 40~50명	① 70 학번, ② 20% ③ * 젊은 동문에 참여 독려 노력 기술이지만 효과는 별로. * 동문회 참여 실익이 없다고 생각, 동문회와의 연결 없이도 미국 현지 생활에 지장 없는 경우가 대부분. * 젊은 부부의 경우, 자녀와 가정 중심으로 바쁨. * 외로운 이민 사회 생활은 교회 등 종교 활동으로 대체, 동문회에 참여할 정신적 여유 없음.	주소록이 있으며 2, 3년 주기로 관리	* 정기행사: 1) 여름 피크닉 2) 송년회 3) 매월 세미나(SNU Forum) 4) 부정기적 동산 모임 5) 신년회 6) 골프 동호회		*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문간의 교제의 기회 * 인생을 먼저 살아오신 선배님들의 조언 및 배우는 기회	* 행사 때 도와줄 일손 부족 * 회비납부율 저조에 따른 재정 경비 부족	* 미국내 대표적 한인 단체들 중에 하나로써 동창회의 미국 사회 및 한인 사회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 안내/홍보	* 각 지부의 특성 및 활동 등 홍보 연재 * 각 지부 위락 행사 홍보 지망	
조지아 GA/AL/MS	주지영 (문리 66)	① 222 ② 65-70명	① 65~70 학번, ② Very Low ③ * 봄 가을 야유회에 가족 초대 (무료), * 50대 동문 자녀와 대학생을 집중한 장학금 program. (젊은 동문의 참여에 별 도움이 못 되었음)	주소록 있고, 올해 배부하였고 노력하고 있음	* 정기행사: 총회, 봄 가을 야유회, 장학기금 모금 골프 대회, 송년회, 4월에서 9월에 열리는 '매달 골프 모임'	* 장학 사업의 수혜자가 동문과 동문 직계 후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확장되길 바람	* 꾸준히 성원에 주시는 동문님들	* 정기 행사에 동문 참여		* 동창회보에 만족 * 귀감이 되는 역사적인 인물 소개	오랫동안(20년 이상) 꾸준히 동문회를 위하여 일하신 김중구 (수의 73) 동문
필라델피아 PA/DE/S.NJ	전무식 (수의 61)	① 168명 ② 40명	① 77세 (61학번) ② 10% ③ 대학교수 동문을 통해 젊은 동문 수 파악 중	주소록이 있으며 매년 신입 회장이 업데이트 함	* 정기행사: 1. 동문 골프대회 (연중 1-2회), 매주 약 8명이 모여 친목 골프 중, 2 비 전공 동문 장기자랑 (경연), 3. 년말 파티 (매년 12월 첫 토요일), 4. 매해 6월 말 신규 회장 이, 취임식	* 동문이 부담없이 자주 함께 모여서 회노애락과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 새 인재들의 숫자 부족 상황에서 전임회장들이 새임원으로 쾌히 승락 했을때	* 전체적 동문 참여율 저조 * 젊은 동문의 상대적 숫자 감소	* 모두들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고 싶다.	* 연로해 가는 여러 동문의 숨겨진 비화들을 늦기전에 함께 나누는 것이 되길	
플로리다 FLORIDA	정치영 (법대 76)	① 40 ② 10~15명 내외	① 60~80세 ② 없음 ③	동문 주소록 있음	* 정기행사는 없고 비정기행사가 주류			* 동창회 성격 설정에 어려움			
커네티컷 CT	유시영 (문리 68)	① 30 ② 15명 내외	① ② ③ * 모임의 식사에 자녀들과 같이 오시라고 연락을 드렸으나 한 분도 반응하지 않음.	주소록 있고 업데이트 함	* 정기행사: 2번 회식, 1번 골프 lesson, 1번 여행	* Maintain the correct directory in our branch	* Senior members like the group tour.	* 항상 모임의 날에 동문 개인의 schedule conflict	* Feel sorry not having much to share	* 좋은 봉사 활동 소개	
하들랜드 IA/MO/KS/NE/AR/OK	오영순 (가정 69)	① 60명 ② 20명	① 60세, ② 20% ③ * 30-50대 동문 부부들만 따로 저녁 모임을 가졌는데, 비교적 효과 있는 편임. * 유학생 동문은 회비도 면제해 주고, 동창회 밤 행사 때 디너값도 면제해 주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베풀지만 최근 10여년 동안 별로 효과 없음.	주소록 있고 업데이트 함	* 정기행사: 1. 봄 (4월) 골프 모임, 당일 저녁 팻택 디너로 지역 회원들 초대. 임원, 이사회와 함께 있음. 2. 가을 (9월) 동창회 밤 모임과 추계 골프 모임 3. 겨울 (12월) 송년 파티 모임	* 분기 별로 발행하는 e-newsletter 등 동문 간 친목을 도모하는 network 증진에 계속 힘을 기울일 것.	* 지난 20여년 동안 해마다 지역사회와의 교묘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사업이 보람 있는 사업	* 지역 겨울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은퇴하신 동문들은 플로리다 혹은 캘리포니아로 많이 이주. * 한국의 사정, 이민 정책 등의 이유로 젊은 동문의 숫자가 현격히 줄어 듬.	* 동창회원들의 친목, 지역 사회의 공헌 및 모교 발전을 위해 동기부여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기 바람.	* 현재의 편집 방향이 아주 좋다. 젊은 동창의 참여를 위해 집필진을 남녀 노소 균형을 맞추어 주시기 바람.	이상문 (상 57) 동문 네브라스카 주립 대학의 석좌교수 (Emeritus Professor)
휴스턴 HOUSTON	구자동 (상대 70)	① 130명 ② 20~45명	① 65세, ② 10% ③ * 젊은 동문의 참석율 향상 논의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고민임. * 항상 가족 동반 참석 동문의 경우 행사 회비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자녀들을 위한 선물 제공 등 특별 대우를 하고 있음. 효과는 있으나 미미함.	지난 30년간 매년 업데이트 하여 발간 해왔으나, 2018년부터 3년마다 업데이트 하기로 결정	* 정기행사: 5월, 김태훈 동문(사대 57업) 초청 Crawfish Boil 5월, 장학금 시상 행사 9월, 열린 음악회 12월, 연말 정기총회 및 파티		* 34년간 운영하는 동창회에서 동문의 재정적 지원이 활발함. 따라서 장학사업, 열린음악회 개최 등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보람됨.	* 회장 및 임원진 구성이 어려워지고 있음.	* 각 지부의 동문이 본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보호와 메세징 기능이 있는 동문 회원록 APP을 만들어 모든 동문에게 배포하면		동창회에서 논의하여 추후 추천하겠음



박수경 (생과 84)

행복의 나라로

이민 사회의 역사가 길어지다 보니, 점점 2세, 3세들이 늘어나고, 부모님들 역시 자식들 교육률도 훌륭하셔서 좋은 학교에 전문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자랑스러운 2세들이 쑥쑥 커가고 있어서 앞으로 한인타운 미래가 청사진으로 보이고 있다.

나는 회원님들과 첫 통화시에는, 현재 하시는 일에 만족 하시나요? 행복하게 일을 하시고 있으신지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젊은이들은 하는 일에 만족하시는 문들이 늘고 있으며 저번 주에는 사무실 이사를 했다고 꽃다발을 들고 방문을 하신 여성 회원님께서 "선생님! 저번 주에 만난 회원님은 정말로 자기 일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이야기를 하면 입이 귀에 걸려요. 그렇게 자기 하는 일을 좋아 하는 분을 만나니깐 신뢰감도 생기는 것 같고요. 기분 좋게 첫 만남하고 왔어요." 외모상으로는 키가 좀 작으셨지만 저는 신경 안써요. 대화

가 참 즐거웠고 아이스크림도 자기가 먹던 것도 맛보라고 하면서 수터분 하시고,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미팅 결과 꼭 알려주세요! 또 큰일 났어요! 왜요? "첫번째 만난 동부에서 오신 남성 분 그 분도 저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서로 취미도 맞는 것 같고 대화 가 참 잘 통했어요. 어떻하지요? 만나본 두 분 다 마음에 드네요. 일부러 매너 교육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나이도 30살이고 지금은 일도 여유가 생겼고, 누구를 만날 준비도 되어 있으니 굿 타이밍에 시작한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배우자 인연을 만나기가 어렵고 일을 하다 보니 직장, 집만 왔다갔다 하니 더욱더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곳이네요. 그래서 가입 결정을 하고 만남을 해보니 서비스가 만족스럽네요. 나이는 아직 많이 어리지만 어른스럽게 이야기도 해주고 상황 파악을 해서 영특하고 이쁜 회원님이라 경험으로 볼 때 성혼 확률이 높겠다고 축을 받았다.

몇년 전에 부모님의 강요로 의사 공부 중이던 남학생은 결국에는 적성에 안맞다고 중간에서 그만 두고 지금은 여행 다니면서 쉬고 있다고 했다. 여동생은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본인은 여동생 한테도 구박 받고 부모님 잔소리 듣고 있고 하다 보니 의욕도 안 생겨서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 이시다고 하셔서 좀 쉬고 본인이 좋아 하고 행복한 일을 찾으세요. 아직 나이도 20대 이신데 충분히 시간도 많으시고 회원님은 성품이 감성적이라서 학교 선생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때는 여기 저기 여행 다니시고, 그쪽으로 전공을 바꾸어보셨으면 합니다.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니 본인도 그쪽으로 고민을 하시고 있었던 중이었다고 밝은 음성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또한 남들이 작성에 딱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줄 때 행복 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7월 달력을 쳐다봤다. Gracias!! DUO USA 대표

기고글 모집합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기고문이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제 어느 형태나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동창회는 매월 회보의 1면 톱 기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호에 특별 주제를 정하여 그에 맞는 기사나 기고문을 동문 여러분으로부터 받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시간을 내시어 1면 톱기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기사 및 원고를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매월 호에 맞는 주제에 대한 기고 및 원고를 저술하시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는 동문이 주인이 되어 만들어 가는 회보입니다.

어느 특정인이나 그룹이 多數 多回 지면을 차지하는 그런 회보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 회장 윤상래 드림

월별 1면 게재 내용 및 주제

Month	1면 게재 내용	특집 주제
2018년 11월호	모교 홈 커밍 데이 참가기사	홈 커밍 데이 참가기 (소감 및 제안 등)
12월호		올 1년의 회고
2019년 1월호	2019년 신년 설계 및 희망	* 지역 동창회장 신년 인사 (원고 모집) * 동문들의 신년 설계와 희망 (원고 모집) * 과학 기술의 미래에 대한 동문들의 기고 또는 취재 글
2월호		미국을 보는 눈: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미국에 사시면서 경험하고 느끼신 소회)
3월호		3.1 운동 100주년과 그 의미
4월호		4.19의 의미
5월호		5.16의 의미, 5.18의 의미,
6월호		6.25 한국 전쟁 (희상 및 증언 남기기). 한반도 민족 갈등 해소 방안 제언.

보내실 곳: 이메일 news@snuuaa.org

새로운 기획 시리즈

동창회에서는 동문들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 그리고 소중한 경험 등을 담은 기고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각 시리즈 토픽을 참고하시어 많은 기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문의 창> 신설
1면 하단에 박스 칼럼으로 <동문의 창>을 신설했습니다. 500단어 내지 750글자(스페이스 포함) 정도로 동문들의 견해나 '사회를 바라보는 눈' 정도의 글을 받습니다.
(분량은 모교 동창회보 1면의 "관악춘추" 보다 약간 적은 것을 희망합니다.)

미주 동창회원들이 처음 미국 땅에 발을 디딘 날에 대한 회고

인생 후배들에 주고 싶은 조언이나 교훈 - 그들의 보다 나은 미래 향해를 위하여
*예: 후배들에 교훈을 준다면...? 인생의 요체는 무엇인가..

미국에 살다보니...
(미국생활에서 감명 받은 일이나 실수한 것 등 일화 소개)

동문 자녀들의 미국 생활의 소개나 인터뷰 글 받습니다.
(동문의 후예로서 미국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등)
예: 회보에 이미 실린 기사
- 이상윤(David Lee, 프린스턴대 부총장, 이성수 동문(사대 55) 아들 (2013년 7월호)
- 미셸 리 전 워싱턴 DC. 교육감, 이상열 동문(의대 65)의 딸 (2009년 8월호)

지역 동창회 소개 계속 받습니다. (아직 소개 되지 않은 지부입니다)
- 코네티컷, 북텍사스, 미네소타, 애리조나, 오레곤, 오하이오, 유타, 중부텍사스, 플로리다, 캐롤라이나, 테네시, 하와이, 하트랜드, 휴스턴

참여 협력 영광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 978-835-0100 | F 978-353-1882

www.snuuaa.org
email: general@snuuaa.org

제16대 (임기 2021. 7 ~ 2023. 6) 회장 후보 추천 공고

서울대 미주동창회에서는 미주에서 활동하시는 동문 회원 중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 회장 – 제16대 동창회장 (임기 2021. 7 ~ 2023. 6)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동창회 정관 및 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6일

서울대 미주동창회 인선위원장 손재옥 (제13대 회장)

연락처: 손재옥 전회장 (267-736-2992) | 윤상래 회장 (978-835-0100) | 신용남 차기회장 (646-523-9606)

제16대 회장 (임기 2021. 7 ~ 2023. 6) 선거일정 및 근거규정

- 선거일정: a. 2018년 12월 31일: 회장 후보 추천서 접수마감
b. 2019년 6월 혹은 7월: 전국평의원회의 (정기총회)에서 투표: 차차기회장 확정
- 근거규정: Nomination Committee (Standing) Rules & Regulations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시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500 ☐ \$1,000 ☐ \$ ____	☐ \$75 (2018. 7 ~ 2019. 6) ☐ \$150 (2018. 7 ~ 2020. 6) ☐ \$3,000 (중신이사회비)	☐ \$240 (2018. 7 ~ 2019. 6) ☐ \$480 (2018. 7 ~ 2020. 6) 일반 광고 문의: general@snuuaa.org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 ☐ Charity Fund (나눔) \$ ____ ☐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 ☐ 모교발전기금 \$ 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 2차 회기: 2017.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전희장단 이월금

47,347.11
(11/29) 6,511.97

총동창회 보조금

3,000

총동창회 오찬 협찬

3,000

업소록 광고비

강호석 (상대 81) 240
김원탁 (공대 65) 240
김일영 (의대 65) 240
김창수 (약대 64) 240
남육현 (경영 84) 480
독고원 (공대 65) 240
박종호 (의대 79) 240
서동영 (사대 60) 480
석창호 (의대 66) 240
신동국 (수의 76) 480
신응남 (농대 70) 240
신혜원 (사대 81) 240
엄달용 (공대 69) 240
엄동태 (농대 74) 240
윤 세우 (의대) 240
이경림 (상대 64) 720
이병준 (상대 55) 480
이종모 (간호 69) 240
이준영 (치대 74) 240
정정우 (수의 74) 240
정재훈 (공대 64) 480
주기욱 (수의 68) 240
지흥민 (수의 61) 240
아주관광 Discount 상품권 협찬

광고비

DUO Info. 1,200
DUO Info. 400
DUO Info. (10) 400
DUO Info. (11/6) 400
DUO Info. (12/8) 400
DUO Info. (1/9) 400
DUO Info. (2/8) 400
DUO Info. web 2/23) 500
DUO Info. (4/2) 400
DUO Info. (4/30) 400
DUO Info. (6/11) 400
DUO Info. (9/5) 400
DUO Info. (10/9) 400
JayoneFood (1/22) 1,800
KCCnews.net (8/15/18) 200
KISS (1/17) 3,000
NY Golf (6/18) 1,000
NY Golf (8/9/18) 1,000
SeAh 이병준 1,500
SNUAA, Inc (남가주) 500
SNUAA, Inc (남가주) 700

T. H. & Asso. 1,000
김승호 (공대 71) 400
도명호 (공대 61) 1,000
발전기금 (12/6) 700
서울대병원 강남 (12/29) 1,500
서울대병원 강남 (5/30) 380
서울대병원 강남 (8/31) 380
서울메디칼 (3/15) 1,000
손재욱 (가정 77) 500
신응남 (농대 70) 1,200
심완섭 (의대 67) 1,800
한남체인(3/15) 1,000

나눔

김창화 (미대 65) 25
윤상래 (수의 62) 500
윤영자 (미대 60) 100
황선희 (공대 74) 100

모교발전기금

권기현 (사대 53) 1,000
권철수 (의대 68) 100
심상은 (상대 54) 25
유재환 (상대 67) 125
윤상래 (수의 62) 2,100
윤우용 (공대 63) 500
오인환 (문리 63) 200
임정숙 (의대 51) 1,000
정동구 (공대 57) 500
정태광 (공대 74) 200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서동영 (사대 60) 200
신응남 (농대 70) 200
오인환 (문리 63) 200
윤상래 (수의 62) 6,000
이병준 (상대 55) 1,000
정창동 (간호 45) 100
한재은 (의대 59) 500

수재민 돌기 후원금

윤상래 (NE) 300
정정욱 (NE) 200
고일석 (NE) 200
김문소 (NE) 100
김연화 (음대 68) 200
신응남 (NY) 200
손재욱 (PA) 1,000
황선희 (PA) 200
합계: 2,400

장학금

김기형 (경영 75) 125
김동훈 (법대 56) 100
김은섭 (의대 53) 100
김현하 (의대 57) 100
박용걸 (약대 56) 150
백원일 (농대 70) 500

신규영 (상대 54) 100
신응남 (농대 70) 300
신상은 (상대 54) 100
오인환 (문리 63) 650
유재환 (상대 67) 100
유상래 (수의 62) 5,600
이건일 (의대 62) 125
이원섭 (농대 77) 100
임필숙 (의대 54) 100
전방남 (상대 73) 200
전상국 (사대 52) 500
전영자 (미대 58) 350
정진수 (공대 56) 425
조형원 (약대 50) 500
최수강 (의대) 100

지부 분담금 (2018/7~2019/6)

알라스카 200

후원금

남가주
김 영 (수의 63) 500
김원순 (음대 59) 600
김원탁 (공대 65) 200
김민준 (농대 74) 25
김원철 (의대 65) 200
김재영 (농대 62) 240
김종표 (법대 58) 500
김진형 (문리 55) 1,500
김창신 (사회 75) 100
노명호 (공대 61) 3,000
문석면 (의대 52) 200
민수봉 (상대 55) 25
박인창 (농대 65) 100
박종수 (수의 58) 2,100
방성훈 (상대 55) 200
백옥자 (음대 71) 600
위종민 (공대 64) 200
유재환 (상대 67) 200
이건일 (의대 62) 300
이명선 (상대 58) 500
이범모 (치대 74) 200
이범식 (공대 61) 400
이병준 (상대 55) 11,000
이명숙 (치대 63) 400
이영일 (문리 53) 200
이현찬 (치대 75) 200
임창희 (공대 73) 100
전경철 (공대 55) 400
전희택 (의대 58) 200
정동구 (공대 57) 500
정재훈 (공대 64) 270
정희영 (치대 58) 100
조한원 (의대 57) 100
최은관 (상대 64) 300
하기환 (공대 66) 200
하선호 (치대 81) 200

북가주

강정수 (문리 62) 125
김윤범 (의대 54) 200
김정희 (음대 56) 200
이성형 (공대 57) 150
한상봉 (수의 67) 240

뉴욕

강예드 (사대 60) 400
김명철 (공대 60) 200
김병숙 (보건 65) 200
김재경 (농대 58) 200
문석면 (문리 52) 200
박두선 (공대 68) 100
박상원 (문리 54) 40
방준재 (의대 63) 200
배명애 (간호 47) 225
배정희 (사대 54) 200
신응남 (농대 70) 2,000
양거명 (약대 49) 25
이경림 (상대 64) 185
이운송 (의대 52) 525
이전구 (농대 60) 1,100
이재원 (법대 60) 350
이준행 (공대 48) 3,000
전재우 (공대 61) 200
정민식 (상대 58) 200
정창동 (간호 45) 75
조명애 (간호 47) 375
조정현 (수의 58) 1
최한용 (농대 58) 500
허선행 (의대 58) 400
허유선 (가정 83) 100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1,000
김문소 (수의 61) 80
김병국 (공대 71) 65
김선철 (약대 59) 100
김은한 (의대 60) 1,250
김정환 (공대 52) 200
김재호 (음대 56) 100
송미자 (농대 62) 65
윤상래 (수의 62) 40,600
윤영자 (미대 60) 100
이의인 (공대 68) 1,100
이재선 (공대 57) 2,000
이희규 (공대 69) 200
전진희 (박영철) 25
정선주 (박영철) 3,000
정정욱 (의대 60) 1,400
정태영 (문리 71) 600
정혜호 (간호 66) 65
최선희 (문리 69) 200
최홍균 (공대 69) 2,000

라스베가스

윤우용 (공대 65) 500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2,000

복텍사스

이석호 (공대 78) 200
최종권 (문리 59) 200

샌디에고

김군빈 (법대 56) 75
박우선 (공대 57) 200
임준수 (의대 57) 200

시카고

강영국 (수의 67) 200
구행서 (공대 69) 100
김연화 (음대 68) 150
오봉남 (법대 52) 260
이용락 (공대 48) 1,000
임근식 (문리 56) 500
조형원 (약대 50) 500
최희수 (문리 67) 75
홍혜래 (사대 72) 225

아리조나

박양세 (약대 48) 200
지영환 (의대 59) 200
진병영 (공대 70) 100

오래곤

김상순 (상대 68) 500
송재욱 (의대 69) 200

오하와이

김동광 (공대 62) 50
성홍환 (수의 75) 200
송용재 (의대 63) 200

워싱턴 DC

강길종 (약대 69) 200
권철수 (의대 68) 200
박용걸 (약대 56) 200
박광필 (농대 69) 600
백 순 (법대 58) 200
서윤석 (의대 62) 300
신상국 (의대 52) 500
오인환 (문리 63) 200
이윤환 (공대 46) 100
이영록 (공대 59) 200
이인욱 () 25
장효열 () 100
최준호 (공대 60) 25
한희생 (수의 60) 200

워싱턴 주

하주홍 (경영 77) 25

조지아

백성식 (약대 58) 75
주종광 (약대 60) 2,000
허지영 (문리 66) 2,000

필라델피아

김영남 (의대 61)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서준민 (공대 64) 350
송재욱 (가정 77) 500
송영두 (의대 56) 700
신상식 (공대 56) 200
이만택 (의대 52) 200
이성숙 (가정 74) 250
제갈은 (문리 59) 150
전무식 (수의 61) 200
주기욱 (의대 68) 200
조화영 (음대 64) 150
조정현 (수의 58) 500
조화영 (음대 64) 150
지흥민 (수의 61) 400

폴로리다

김준권 (의대 63) 200
전영자 (미대 58) 50

커네티컷

김기훈 (상대 52) 400
유시영 (문리 68) 500
200

캘리포니아

한광수 (의대 57) 400

하와이

김승태 (의대 57) 600

하트랜드

오명순 (가정 69) 500
이상강 (의대 70) 10,000
최은관 (상대 64) 300

휴스턴

김욱균 (공대 54) 200
진기주 (상대 60) 500
최영기 (공대 63) 200

(강영빈 동문 후원금 \$2,000은 모교 동물학과, 생물학과 58 학번 동문 이 요청하면 동창회비를 대납해 드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71명)

골드 출신 이사 오인석 (법대 58)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김재영 (농대 62) 노영호 (공대 61) 박명근 (상대 63)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지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정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재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종환 (사대 54) 한귀희 (미대 68) 한종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북가주 김정희 (음대 56)	뉴욕 김광호 (문리 62) 오인석 (법대 58)* 윤정옥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준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형 (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지대 64) 정선주 (간호 68)	루이지애나 강영범 (문리 58)* 미네소타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이윤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오하리오 김용현 (경원 66) 워싱턴 DC 강연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류재용 (법대 60)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조지아 주중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중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주기록 (수의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사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 출신이사 (교인) - * 표: 현반이상 내신 분
---	--	--	--	---	--

동창회비 (2차 회기: 2018.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차기 1차 회기까지 내신 분

[illegible]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광고
Pancom 광고기획 김영민 (농대 72) Tel:(213)427-1377 / youngkim@pancom.com 3701 Wilshire Blvd. #800, LA, CA 90010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팅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Haitai Inc. 정정우 (수의 74) Tel.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KMAX 유창호(약대 74) Tel. 213-381-3200 814 S. Alvarado St. LA. CA 90057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광고주를 모십니다.
광고주를 모십니다.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중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l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광고주를 모십니다.
광고주를 모십니다.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광고주를 모십니다.
광고주를 모십니다.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광고주를 모십니다.
광고주를 모십니다.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e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240 Grand Ave Suite 2 Leonia NJ 07605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시오. <편집부>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H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D-VA 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MD-VA 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n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팅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균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n.com
광고주를 모십니다.
광고주를 모십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봉사직원과 현지 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 213-388-4000 문의: D.C. 상훈권 백옥자 (Jace Lee) 213-388-4000, 818-395-1967

KCC News kccnews.net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News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과 크리스천 문화활동을 취재보도하는 Internet Media. 각 지역 서울대 동문들의 문화활동 정보 바랍니다.
남미, 아프리카등 8개국 선교지 11회 방문취재
권문웅(미대 61) moonk206@gmail.com T.973.600.0834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시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치)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차기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Corporate Counselor: 신응남 (농)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강은주 IT Consulting Team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정태영 (문) 편집 위원: 윤용훈 (공), 홍선례 (음), 정태영 (문), 이정수 (공), 백옥자 (음) 이영인 (사), 장수인 (음), 김제성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허유선 (가정), 한정민 (농), 배지선 (수)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 위원회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광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이석구 (문), 이원영 (사),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종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록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강신용 (사대 73)	213-380-1600	aamkocpa@gmail.com	Feb-Jan
	차기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윤은상 (상대 66)	978-886-5989	eunsang_yoon@uml.edu	Jul-Jun
	차기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oko@gmail.com	Jan-Dec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룩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480-209-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 (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423-1055	sejinsong@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재봉 (인문 88)	760-585-8396	jebong20@yahoo.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홍혜례 (사대 72)	773-896-7987	hyerye.h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승주 (간호 69)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명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tiinc94@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석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북텍사스 MID-TEXAS	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전무식 (수의 61)	267-242-5097	msjeon41@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일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는 싱글맘,
이제 좋은 짝만 있으면 되겠조?

결혼해 듀오

DUO USA 3701 Wilshire Blvd. #1122, Los Angeles, CA 90010

미 듀오
LA 213-383-2525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 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http://healthcare.snuh.org

최고의 의료진 · 정확한 진단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의 건강검진으로

최고의 감동을 느껴보십시오.

*예약문의 : +82-2-2112-5500 | healthcare@snuh.org
*동창회원 및 가족 10% 할인

SNUH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EALTHCARE SYSTEM GANNAM CENTER

Bring the Salon Home
KISS

아름다운 세상, **KISS**가 이어갑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뷰티전문기업으로 전세계 더 많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KIS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www.kissusa.com

김광호 (문리 62), 신규천 (상대 73), 한규상 (미대 84), 김영훈 (공대 93)